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NOV 4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969 1982년 11월 2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uesday, November 2, 1982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점서
광고 국장 : 송광호

"소수민족 참여율 높여라"

복합문화장관 매스컴에 촉구

정부간행물등에 비백색계 증가방침

◆짐·플레밍 복합문화성 장관

연방정부는 앞으로 모든 정부의 간행물과 광고에 비백색계 소수민들을 보다 많이 등장시킬 방침이며 각 방송및 신문등 대중 매개업체들도 이 방침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짐·플레밍 복합문화성장관이 말했다.

지난 1일과 2일 팍·플라자 호텔에서 있은 "소수 민족과 미디아"에 관한 회의 참석차 토론토에 온 플레밍장관은 특히 TV에 등장하는 소수민족의 이미지는 복합문화를 지향하는 캐네디언 사회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상태라고 연설했다.

플레밍장관은 정부 간행물및 광고에 관한 새 지침서를 마련, 5일 연방각료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 강령을 통해 포스터, 광고물, 영화, 교과서, 모집광고 등에 각 인종의 안배에 신경을 쓰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플레밍장관은 TV등 매스컴업체가 충분한 비백인계 기자를 확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광고주들도 소수인종의 존재를 무시하는 경향 이 많으며 간혹 매스컴이 소수인종을 광고나 기사에 등장시킨다 하더라도 인종차별적이거나 편파적인 것으로 예컨대 중국인은 세탁비누를 파는 사람, 흑인기자는 소수민족문제를 취재하는 경우에만 기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캐네디언 어린이가 고등학교 졸업때 까지 볼 TV광고 횟수는 35만번이나 되므로 TV광고에 전체 캐나다 사회를 있는 그대로 반영, 각 인종을 골고루 등장시켜야할 것이라고 플레밍장관은 강조했다.

지난 주말 배부된 광고실태 조사통계에 따르면 비백인의 캐나다 TV광고 등장율은 9%인반면 미국 TV광고의 등장율은 12%였으며, 캐나다 TV광고에 등장하는 비백인은 거의 모두 군중속에 포함된 경우였다.

건설업체 전용 은행 설립 추진

(서울30일=연합)해외에서 활동중인 한국건설회사들은 날로 늘어나는 국내송금과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지불보증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건설업체 전용은행을 설립할 것을 검토중이다.

은행소식통들은 30일 기존 시중은행이 이미 해외건설계획 지불보증을 제공할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건설업체들의 자체 재정만으로도 건설업체 전용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자금이 된다고 말했다.

해외활동 허가를 받은 한국 건설업체의 수는 98개 회사로 이중 60개가 현재 해외에서 활동중이다.

◆고종욱 신부가 30일밤 한인성당서 열린 고신부환송회에서 양로원건립위원회로부터 받은 자전거를 타보고 있다. 이날 모임에는 교인및 일반교민 약3백명이 참석, 11월말 로스엔젤레스로 전임하는 고신부를 환송했다. 해병대출신인 고신부를 위해 토론토의 해병대원 10여명이 단상에 올라 군가를 합창했고 공로패를 드렸다.
양로원위원회 천중환회장(왼쪽)은 양로원기금 모금 워커톤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모금했고 가장 많은 스폰서를 얻었던 고신부에게 자전거 2대를 시상했는데 고신부는 이중 1대를 워커톤 참여 최연소자인 서무경군(3살반)에게 즉석에서 주었다. 서동헌씨 장남인 서군은 전장 10Km를 다 걸었다고 부모들은 말했다. (원내는 서군)

어린이 싯밸트착용 법제화

「온」주, 11월1일부로 $28벌금형

11월1일(월)부터 병원에서 태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신생아들은 엄마의 품에 안겨 갈 수가 없게 됐다.

온타리오 주의회가 1일 이후 태어난 아기를 차에 태우고 다닐 때는 정부가 공인하는 "유아용 안전좌석"에 앉혀 반드시 안전벨트(시트벨트)를 묶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어린아기의 시선이 차 뒷쪽으로 향하도록 된 이 "유아용 안전좌석"은 싯가 약 $40에서 $140짜리까지 있으며 규정을 어기고 애기를 엄마가 안고 다닐 경우 경찰은 최고 $28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5세 미만의 어린이는 지난 76년 통과된 싯·벨트착용법에서 면제됐었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83년 11월1일까지 1년간 잠정기간을 두어 82년 11월1일 이전 출생아기로 체중 18Kg(40파운드) 미만인 경우 1년간 싯벨트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그 이유는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2개 이상의 "유아용 안전좌석"을 사야 하는 부담을 없애기 위함이다.)

그러나 83년 11월1일부터는 온타리오주의 모든 체중 18Kg(40 파운드) 미만의 어린이는 "유아용 안전좌석"에 앉혀야하며 18Kg 이상 어린이는 어른과 마찬가지로 차에 부착된 싯·벨트를 매고 있어야 한다.

온타리오주 정부의 새 싯·벨트 안전규정은 다음과 같다.

◉82년11월1일 이후 태어난 아기의 부모는 아기의 머리가 차의 뒷쪽으로 향하는 정부공인 아기안전좌석에 앉혀서 차에 태워야 한다.

◉82년11월1일 이후 출생아기가 체중 9Kg(20파운드) 내지 18Kg(40파운드)로 자랄 경우 머리가 차 앞쪽으로 향하는 정부공인 안전좌석에 태워져야 한다.

◉모든 학령전 아이들(체중 18Kg~23Kg(150파운드))은 자동차 뒷좌석에 부착된 무릎용 싯·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평화통일 연수차 고국방문

전택균, 조영호, 이상호씨등 7명

7명의 캐나다 교포가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고국정부의 통일원 주최 평화통일 연수회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다.

오타와 대사관이 1일 밝힌바에 의하면 참가자는 토론토지역의 전택균씨(YMCA이사장), 조영호씨(노년회장), 이상호씨(전 연세대동문회장)이며, 오타와의 이충효씨(전 한인회장), 캘거리의 김창영씨(전 한인회장), 밴쿠버의 김홍권씨(전 한인회장), 몬트리얼의 정영섭씨(한글학교장)등이 포함된다.

해외교민 고국방문

(서울30일=연합)21명의 해외교민대표들이 일주일간 고국을 방문하기 위해 31일 서울에 도착했다.

북미에서 몬트리얼의 오기송 총연합회회장, 박인순 토론토한인회장, 오타와 송광석 한인회장등 7명과 아프리카에서 10명, 말레이지아 2명, 앵커리지 2명등은 고국방문동안 전두환대통령과 이범석 외무장관을 예방하고 주요도시의 산업시설을 시찰한다.

이들 해외교민대표들의 고국방문은 지난번 전대통령의 아프리카및 캐나다 순방시 수고에 대해 정부가 초청한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캐나다생산성 실적 서방세계에서 최악

캐나다의 생산성 실적은 서방세계에서 최악의 상태라고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경제협력및 개발기구(OECD)의 수석경제전문가가 말했다.

OECD의 경제국장 실비아·오스트리 박사는 지난 주말 토론토에서 개최된 캐나다 근로생활위원회 창립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캐나다생산성 문제의 심각성은 1972년 이래 노동코스트가 15.5% 상승했다는 OECD통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스트리 박사는 이 연설에서 캐나다의 임금은 OECD의 평균을 상회할뿐 아니라, 캐나다의 생산코스트도 생산성의 급격한 하락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정상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경제위원회(Economic Council of Canada)의 의장직을 맡은바 있는 오스트리 박사는 이어 인플레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서서히 증가했으나 캐나다와 유럽의 실업률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은하 보석
란콤 화장품 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김상욱
CANADA SAVINGS BOND는 언제나 현금으로 찾을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대상이 된다. 이는 매년 가을에 한번씩 발행되며, 작년에는 주문이 폭주하여 마감일을 앞당겼읍니다. 저희는 이의 구입에 일체의 수수료를 부가하지 않고 모든 문의에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

광주형무소장 파면

박관현씨 옥사와 관련

(서울=외신)24일자 서울의 일간지들은 한국 법무부가 반정부운동자의 옥중사망을 둘러싸고 문제화되고 있는 광주형무소의 최전식 소장을 지난 20일자로 해직시켰다고 보도했다.

광주사건과 관련, 5년 징역형을 언도받고 광주형무소에서 복역중, 처우개선등을 요구하면서 옥중투쟁중이던 박관현 전 전남대학 학생회장(30)의 사망을 계기로, 동대학 학생들과 반정부인사들의 비난소리가 높아지고, 항의데모가 있었다.

중공조종사 대만향발

기체는 관례따라 처리

(서울1일=연합)지난달 16일 미그-19전투기를 몰고 한국으로 탈출한 중공 조종사 우용갱(25)씨가 당초 계획한대로 1일 대만으로 떠났다.

출발직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씨는 자신은 항상 자유중국의 자유로움을 동경 하고 중국본토의 공산통치를 증오해 왔다고 밝히면서 자신은 대만으로 가는 도중 중간기착지로서 한국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우씨는 이어 자신은 상동반도의 웬떵공군기지에 주둔한 중공공군 제1정찰단 소속으로 지난16일 훈련비행중 통제탑의 돌아 오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한국으로 탈출했다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지난23일 발표를 통해 우씨를 인도적인 견지에서 대만으로 보내고 기체는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었다.

社告

해방37년이 넘었으나 「독립관」이 없읍니다

소름끼치는 36년간의 일본식민지 시대를 회상해서 조국은 독립기념관 건립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읍니다.

일제의 설움을 같이 당했던 우리는 외국에 산다해서 이 운동을 외면하겠읍니까?

성금을 부탁드립니다.

★모금상황(11월1일 현재)
고종욱 신부 : $200
누계 : $2,390

금 액 : 다소불문
기 간 : 1982년
보낼곳 : 토론토한국일보사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전화 : (416)533-2361
※수표작성 Payable to…)는 The Korea Times로.
※겉봉이나 수표에 「독립기념관 기금」이라고 쓸것.
◉매사는 일정금액이 모이면 서울본사에 송금하며 기증자 명단은 토론토 한국일보및 서울 본지에 게재됩니다.

- 토론토 한국일보사 -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R.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Park Avenue Academy
of Arts, Science and Commerce

한국에 있는 학생들의
"캐나다유학을 도와드립니다"

● 학 기 : 1983년 1월, 3월, 6월에 시작됨.
● 캐나다 대학에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
◉유능한 교수진으로 TOEFL 시험 대비 책임지도. (GRADE 12, 13학년)
◉현지에서 입학허가및 VISA 신청을 담당.
● 영어전문 코스만 택할수도 있음(6개월) - LINGUISTIC SCHOOLS OF CANADA INC.

60 Berl Ave. (로얄욕과 퀸스웨이)

※자세한 내용은 직접 교장(Mr. Rick Pellizer)에게 문의…
(전화)259-5411, 또는 한국담당대표 Mr. Lee (전화)251-1423.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불량아들 강제출국 탄원

친구와 어울려 상습절도범으로 전락

(LA지사) 불량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서로 번갈아 자신들의 집을 털어온 한인고등학생을 한국으로 추방해 달라고 한 부모가 호소하고 있다.

현재 산타모니카에 있는 고교 2학년 재학중인 이모군(16)의 부모는 평소 이군이 집안의 값진 물건을 몰래 훔쳐다 유흥비로 탕진하는 것을 눈감아 왔으나 지난 26일밤 11시30분께 이군이 동료 교포학생 3명과 함께 자기집 유리창을 부수고 어머니의 목걸이및 반지등 2천여달러 상당의 귀중품을 털어 달아났다고 한다.

이군가족들에 의하면 이군은 이날밤 친구 3명과 함께 자기집 앞에 잠복해 있다가 야간비즈니스를 하는 가족들이 문을 잠그고 집을 비우자, 집 뒷뜰에 있는 사다리를 이용, 2층 유리창을 깨고 집안에 침입했다.

이들은 우선 안방 장농을 뒤져 이군 어머니 금목걸이, 금반지2개를 챙긴 후 응접실에 있던 4백달러 상당의 카스테레오를 가지고 달아 났다는 것.

이군의 범행을 확인한 부모는『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다』며 아들의 비행을 고발하러 경찰서를 찾아갔으나『아들을 절도용의자로 고발하면 아들은 영영 전과자로 남게 된다』는 경찰의 만류로 신고하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부모는 이군이 자기집을 털기전에도 지난 25일밤에는 평소 같이 어울린 최모군(16)과 함께 최군의 집에 들어가 최군 어머니 팔찌를 몰래 훔쳐갔다는 최군 어머니의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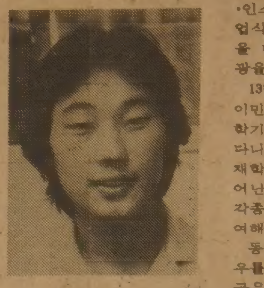
이 부모는 또 뉴욕에서 한인부모가' 동양계 갱단에서 아들을 [illegible]기 위해 한국으로 아들을 추방시킨 신문보도를 읽고, 자신들도 아들을 한국으로 강제추방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군 부모는 이군을 선도하기 위해 일부러 한인타운 근처의 학교를 피해 산타모니카 U고교에 입학시켰으며 가정교사까지 두어 학교공부에 전념케했으나 2년반전 이민온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료3명과 어울려 부모집과 친척집등을 골라 물건을 훔치는 전문털이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모는 이들 4명이 권총과 칼을 가지고 다니고 있어 앞으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지도 모른다고 안타까와 하면서 현재는 달아난 이군을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애만 태우고 있다.

졸업식서 대표연설

이윤배씨아들 지용군



◆이지용군

교민 이윤배·전을순씨의 둘째 아들 이지용(John Lee)군이 지난 22일 있은 스카보로의 세다브레·컬리지엣·인스티튜트 12, 13학년 졸업식에서 700여명 졸업생을 대표해서 연설하는 영광을 누렸다.

13년전 국민학교1학년때 이민온 지용군은 지난 9월 학기부터 토론토 대학에 다니고 있으며 세다브레 재학당시 학교 성적이 뛰어난 것은 물론, 스포츠등 각종 학교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다.

동양계라고 해서 차별대우를 느낀 적은 없다는 이군은 특히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었다고, 이군은 토론토대학에서 의과를 수학, 장래 의사가 될 계획이다.

금주내 재산세환급

노인 2차분해당자 선정

6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나 주택임대자에게 생계비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82년도 재산세환급금 2차분이 금주내로 해당자에게 우송으로 지급된다.

조지·아쉬 주정부세무장관은 지난 주말 의회에서 2차분 재산세 환급금(최고액 250달러)이 우송으로 해당자 478,369명의 노인들에게 수표로 우송, 금주내로 각자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1인당 82년도 최고 환급액수는 500달러이다.

이번 2차분 환급신청자는 총 529,000명이며 이중 약90%가 해당자로 선정되었다고 아쉬장관은 밝히면서 2차분 총액은 1억1천5백만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스페인사회노동당수 펠리페·곤잘레스(중앙)가 총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고 웃음을 짓고 있다. 유럽사상 최연소 수상이 될 40세 곤잘레스의 절대적 인기도 이번 승리에서 한 역할을 한것으로 아려졌다.(마드리드, 스페인-UPI)

스페인 좌익정권 탄생

42년만에 노동당 압승

(마드리드-UPI) 28일 스페인전국에서 실시된 총선거 결과 예상대로 펠리페·곤잘레스(40)가 이끄는 사회노동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써 스페인은 지난 1939년 프랑코군부에 의해 제2공화국의 좌익정권이 붕괴된 이후 42년만에 다시 좌익정권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날 총선은 투표소에 경찰대신 군병력이 투입되는등 사회노동당의 승리를 저지하기 위한 군부쿠데타 반발의 끈질긴 소문이 나도는 공포 분위기속에서도 평화적으로 실시되었다.

40세의 곤잘레스 사회노동당당수는 유럽사상 최연소수상이 될 것이며 사회노동당이 차지하게 된 의회의석은 전체 3백50석 가운데 2백2석이고 프란시스코·프랑코정부의 수상으로 재임하던 마누엘·프라가·이리바르네의 우익민중동맹당은 1백1석을 차지하게 됐다.

곤잘레스는 선거공약으로 앞으로 4년이내에 80만명의 새 직업을 알선하는 것과 군개편 등을 주장했다.

金聖鍾작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99>

29분의 1 ④

『그건 지금까지 엉터리 수사를 했다는 증거야!』

대머리는 주먹으로 탁자를 두드렸다. 실내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당신들이 조사한 지역에, 그중에서도 스물아홉집 가운데 한집에서 시체가 토막이 났을 가능성이 있는데 당신들은 지금까지 아무 단서하나 포착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런 엉터리 수사가 어디 있어?!』

김형사는 자기 때문에 다른 수사관들이 욕을 먹는 것만 같아 좀 민망했다.

『내일 15반과함께 29분의 1을 찾아내! 꼭 찾아내라고!』

대머리는 김형사를 바라보았다.

『오늘 보고는 15반이 제일 훌륭했어. 아직 끝내지 못한 반은 빠른 시일 내에 끝내도록 하고 나머지 반은 대기하고 있다가 지원요청이 있으면 출동하도록.』

다음 날, 스물아홉집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렇다고 스물아홉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다가 조사할수도 없는 일이었고 또 그래서도 안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은밀하고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먼저 제1반과 제15반이 일차적으로 스물아홉집을 점검했다. 경찰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가지 직업으로 신분을 위장해서 각가정에 들어갔다. 집집마다 번호가 매겨졌고, 수사요원들은 자기들이 방문한 집안에 아라비안 카피트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고 나왔다.

그 결과 스물아홉집 가운데 네 집을 빼고는 모두 문제의 카피트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카피트가 없는 네 집은 지난 두 달 사이에 새로 이사온 집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사간 네 집들을 찾아내야겠군.』

『그렇죠.』

김형사와 마형사가 주고 받은 말이었다.

제15반은 이번에는 이사간 네집을 맡았다.

다른 반들은 스물한집을 분담해서 그 주위에 잠복했다.

제15반원들은 동회에 가서 전출자명부를 뒤졌다. 이사간 네 집은 금방 밝혀졌다.

두명씩 짝을 지어 한집씩 맡기로 했다. 각 집에는 역시 번호가 매겨졌다.

김반장과 마인은 여관에 대기하고 있었다.

두 시간쯤 지나 연락이 오기시작했다.

『1번에서 카피트가 발견됐읍니다.』

뒤이어 4번과 3번에서도 카피트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마지막으로 2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2번 역시 카피트가 있다는 보고였다.

『피살자가 카피트를 쥐어뜯은 자국이 남아 있을까?』

마지막 보고를 받고난 김반장이 마인을 돌아보면서 물었다.

『아마 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손으로 쥐어 뜯는다고 해서 큰 흠이 날만큼 뜯어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들은 제1번 집을 향해 출발했다.

그집은 북쪽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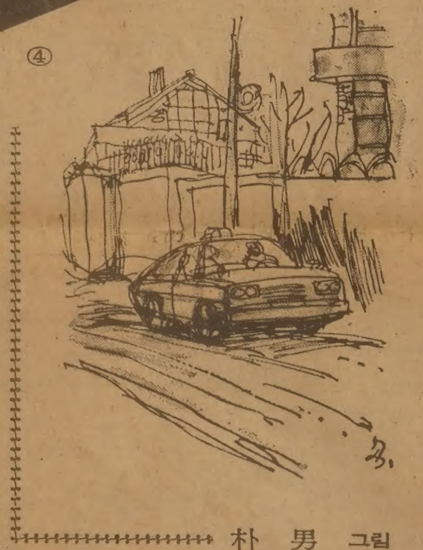
한 시간이 못돼 그들은 먼저 나가있던 수사요원들과 만났다.

『아라비안 카피트를 사용할 정도면 생활수준이 괜찮겠지?』

『중산층 이상일 겁니다.』

택시가 달리는 동안 그들은 각자 생각에 잠겼다.

신분 위장 이사간 4집까지도 수사…



朴 男 그림

식자안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 훨씬저렴한 가격

● 빠른 써비스

책종류 환영함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5분간의 落書

To be, or not to be

홍 기 만 (문협회원)

◆홍기만 씨

거창하게 고전을 들먹일 생각은 조금도 없다.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그럴 용기가 전혀 없다. 짓궂은 마음으로 표제를 붙여 봤을 뿐이다. 장난삼아 붙여본 제목은 어쩔 수 없이 무대를 연상케 하지만 실은 「TV타령」을 하고 싶어서다.

책에 관한 고전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윌리암·블레이즈의 〈서적의 원수(敵)〉에는 여러가지 적 가운데 첫째로 「불」을 꼽고 있다. 「분서(焚書)」를 뜻한다. 분서와 나란히 「금서(禁書)」가 있다. 현대사를 살펴보면 「분서」보다도 더 악랄한 서적의 적이 공산국가의 「금서정책」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서적의 적보다도 더욱 무서운 적은 책을 읽어야할 사람이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일지 않은 것일 것이다.

이런 무서운 적이 우리 한국인의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다면 사람들은 놀랄는지 모른다.

한국의 여론조사 집계에 의하면 작년 한해에 책을 한권도 읽지 않은 성년인구가 30.7%이고, 그것도 가장 감명 깊었던 책은 「3국지」와 「테스」라는 발표다.

만일 토론토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작년 한해가 아니라 이민 이후, 물론 특수환경이다. 우선 나 자신 이민 10년동안 본격서적을 읽은 기억이 그리 없다. 종교서적을 빼놓으면 아마 전멸상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한국인의 「독서부재론」은 새삼스런 이야기는 아니다. 젊은 층마저 책읽기는 고사하고 원작을 번안한 TV물이나 영화를 보고 행세하는 걸 종종 보게 되니 말이다.

김형석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요즘은 책을 읽으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 화면을 보며 느낄 뿐이다."

평범하지만 우리의 헛점을 아프게 찌른다.

텔레비를 볼때 사람들은 수동적이 된다. 자기 세계가 없다. 흐르는 화면을 좇을 뿐이다. 반면 책을 읽는 것은 능동적이다. 자기 세계를 갖는다. 한장씩의 책장을 넘기며 거기에 담겨진 무수한 지혜와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시절엔 그래도 TV를 무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곳 생활은 사정이 다르다. TV는 북미인의 일상생활 속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TV물결에 밀려 폐간된 북미의 신문은 수없이 많다. 이제는 신문이 TV를 좇고 있다. 워싱톤에서 새로 발행된 「U.S.A. TODAY」란 신문은 선명한 색채사진과 굵직한 제목활자로 마치 칼라TV를 보는 인상을 받도록 편집을 했고, 무인판매기도 TV 모양을 닮았다는 보도다.

가끔 TV화면에 묻혀 사는 게 아닌가 할 때가 있다. TV를 피할 길이 별로 없다. 어떨 땐 TV음향이 신경을 에이는 것 같다. 어느 집을 방문해도 TV는 항시 켜져 있고, 또 그렇게 켜져 있어야 하나보다.

나는 우리집 작은애와 TV실랑이를 자주 벌인다. 녀석은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비비면서 텔레비 스윗치부터 누른다. 별로 보지 않으면서도 TV를 틀어 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이다. 직장에서 돌아와 보면, 역시 학교에서 돌아온 녀석은 TV를 보고 있다. 프로선택을 하느라 채널을 바꾸는 소리가 귀에 따갑다.

실랑이는 늘상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TV를 끄라고 한다. 녀석은 「Why?」하고 나선다. 당돌한 저항에 좀 당황하지만 모든 부모들이 뇌이는 「산수공식」같은 이유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프로만을 골라 보라고, 그렇잖으면 TV는 「바보상자」라는 별명처럼 자라는 어린이를 바보로 만든다고, 거기에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첨가한다. 폴란스키의 「테스」가 아무리 영상(映像)이 아름다워도 1880년 토마스·하디의 원작보다 못하다는 설명도 곁들이며 시공(時空)을 초월하는 게 고전이란 이야기를 풀이한다.

"더즌타임도 더 들었어요. 그 얘긴-" 녀석의 볼멘 소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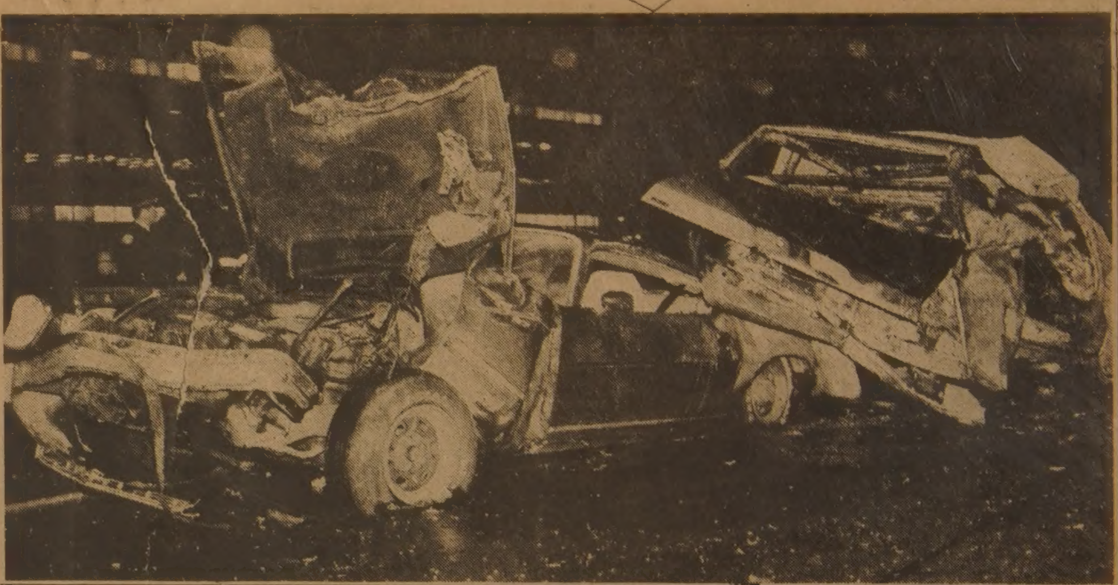
이런 실랑이가 수없이 거듭되지만 우리집 TV화면은 언제고 흐르고 있다. 그러기에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혼자 이렇게 중얼거려 보는 것이다. "To be, or not to be"가 햄릿시대의 고민이었다면 현대의 고민은 아마도 "TV, or not TV"인지 모른다고.

하긴 녀석이 눈을 비비며 TV를 트는 것이나, 내가 어려서 「공부하라, 공부하라」하던 부모의 성화를 귓전으로 돌리고 눈을 비비며 조간신문을 더듬던 것이나 뭐 다를 게 있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식품점〉

삼복식품	743－8270
한밭식품	274－5401
제일식품	532－1054
서울식품(동부)	291－8318
서울식품(서부)	243－9544

◆1일밤 노스·욕의 하이웨이 404에서 자동차 3중충돌사고가 발생, 1명이 불에 타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한국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6년간 정통 중화요리를 자랑스럽게
봉사 해 왔읍니다.

WE SERVE
KOREANS FOR
OVER 26 YEARS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석이 준비 되어 있읍니다.

영업시간 :
11 : 30am.
2 : 30a.m.

SAI WOO

ALOHA RESTAURANT

영업시간 :
11 : 30a.m.
11 : 30p.m.

SAI WOO RESTAURANT & TAVERN
130 DUNDAS ST.W. TOR ☎ : 977－4988

ALOHA RESTAURANT & TAVERN
123A DUNDAS ST.W. TOR ☎ : 977－3438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4명의시위원선거 앞두고 각 후보평가

갓프리, 준·롤랜즈는 최고점수

잉·호프, 켄·모리쉬는 최하위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온타리오주내 시총선거를 앞두고 토론토·스타지는 이번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는 메트로·토론토 시의원 4명에게 재선을 노리는 각계 후보의 평가를 의뢰 결과, 평가를 받은 메트로 각 시의원, 재정관 총 36명 중 모두 A(스트레이트 "A")를 받은 사람은 메트로 시의회 의장 폴·갓프리와 토론토 시의원 준·롤랜즈, 스카보로 재정관 브라이언·해리스 3명 뿐.

가장 나쁜 평가를 받은 후보는 C하나에 F넷으로 전체 F를 받은 토론토 제5지구 시의원 잉·호프, 노스욕 시의원 마리오·젠타일, 스카보로 재정관 켄·모리쉬, 욕 재정관 필립·화이트 등이었다.

스타지가 평가를 의뢰한 4명은 그동안 이들 입후보들과 함께 일해온 시의원들로 보수당인 빌·스톡웰, 앨런·레드웨이 그리고 신민당인 패트·쉐퍼드, 고든·크레시등 4명. 이들은 지금까지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해 낸 사람에게 "A", 그저 그런 사람에게 "C", 일을 잘못해 낸 사람에게 "F"로 평가했다.

평가는 시의회및 각 위원회 참석율, 발언회수, 창의적인 정책수립,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정도및 견해의 일관성, 책임감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10월31일자 스타지에 보도된 각 후보의 종합평점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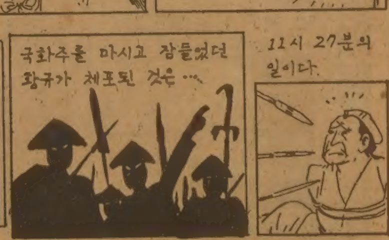
성명	출석율	발언회수	창의성	문제파악력	일관성	총 평
Paul Godfrey (Metro Chairman)	A	A	A	A	A	A
Fred Beavis (Toronto Alderman)	C	F	F	C	C	C
Milton Berger (North York Alderman)	C	F	F	F	A	F
Bill Boytchuk (Toronto Alderman)	C	F	F	F	C	F
Fergy Brown (York Controller)	A	C	C	A	A	C
Irv Chapley (North York Alderman)	C	C	F	C	C	C
Gordon Chong (Toronto Alderman)	C	C	C	C	C	C
Gayle Christie (York Mayor)	C	C	C	C	C	C
Art Eggleton (Toronto Mayor)	C	C	C	C	C	C
Dennis Flynn (Etobicoke Mayor)	A	A	F	A	A	C
Ed Fulton (Scarborough Alderman)	C	F	F	C	C	C
Norm Gardner (North York Controller)	A	C	F	C	C	C
Mario Gentile (North York Alderman)	C	F	F	F	F	F
Ben Grys (Toronto Alderman)	C	F	F	F	C	F
Gus Harris (Scarborough Mayor)	A	C	F	C	A	C
Brian Harrison (Scarborough Controller)	A	A	A	A	A	A
Ying Hope (Toronto Alderman)	F	F	F	C	F	F
Anne Johnston (Toronto Alderman)	A	A	A	A	C	A
David Lacey (Etobicoke Controller)	A	F	C	C	C	C
Mel Lastman (North York Mayor)	C	C	F	C	C	C
Ken Morrish (Scarborough Controller)	C	F	F	F	F	F
Dick O'Brien (Etobicoke Controller)	C	C	F	C	C	C
Tony O'Donohue (Toronto Alderman)	C	C	C	A	C	C
Pat O'Neill (North York Alderman)	A	C	C	C	C	C
Peter Oyler (East York Alderman)	C	F	F	F	C	F
Joe Piccininni (Toronto Alderman)	C	C	F	C	C	C
Maureen Prinsloo (Scarborough Alderman)	C	F	F	C	C	C
June Rowlands (Toronto Alderman)	A	A	A	A	A	A
Carol Ruddell (Scarborough Controller)	C	C	F	A	C	C
Esther Shiner (North York Controller)	C	C	F	F	F	F
Bruce Sinclair (Etobicoke Controller)	A	C	C	C	C	C
Betty Sutherland (North York Alderman)	A	C	C	C	C	C
William Sutherland (North York Controller)	A	F	F	C	C	C
Joyce Trimmer (Scarborough Controller)	A	C	F	C	F	C
Philip White (York Controller)	C	F	F	F	F	F
Robert Yuill (North York Controller)	A	C	F	F	A	C

〈여행사〉
신세계여행사 .. 536—2155
서울여행사 ..... 535—6004
제일여행사 ..... 535—2377
북미여행사 ..... 366—0960
천우여행사 ..... 928—3335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 합니다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훼미리·닥터
(의사 왕문린)
(B) 968—1543 · R) 363—9196
600 SHERHOURNE ST. #402
월~금: 오전 10시~오후 7시
토: 오전 11시~오후 3시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독자의 광장〉

빨래터

손영순(에드몬톤 거주)

한가롭게 춤을 추는 송사리떼도 한눈에 볼 수 있는 맑은 시냇가에나, 조약돌이 듬성듬성 놓인 강가에서 치마끄리를 단정히 여며가며 빨래하는 아리따운 아낙네의 모습들.

때때로 콧등에 맺히는 땀방울을 젖은 손등으로 살짝 문지르며 "똑딱똑딱" 방망이질에 여념없는 한폭의 그림같은 정겨운 모습만이 내눈엔 익숙한데……,

냉방장치가 완벽하게 더위를 앗아가는 칸막이 속에 즐비하게 줄을 선 세탁기와 건조기가 서로 질쎄라, 일정하게 돌아가는 음향 속에 쌍쌍이 혹은 혼자서, 또는 가족이 함께 와서 빨래하는 모습 또한 이색적인 흥미를 자아낸다.

농담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큰 목소리로 건네보려는 익살맞은 중년의 남자, 신문잡지를 열심히 읽는 이들, 도넛과 커피로 점심대신 땜질하는 사람, 젊은 아가씨는 흐르는 시간이 아까운지 뜨게질을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니 이것 또한 별차원의 세계같다.

내가 어릴때엔 상상도 못했던, 현대의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된 상황 아래서의 생활들을 흥미롭게 넘겨다 보고 있노라니, 한 모퉁이에서 이색적이고 낯선 일이 펼쳐진다. 플라스틱 바구니속에 빨래감을 잔뜩 넣어온 젊은 남자가, 알뜰한 주부처럼 종류따라 구분구분 분류하면서 뒤집힌 양말 다시 바로 뒤집고, 접혀서 말아 올라간 소매 바지자락 펴고, 호주머니마다 털어보면서 배치되어 있는 세탁기에 집어 넣는 낯선 모습이 호기심을 잔뜩 돋운다.

무심코 「저 사람, 아파트에 사는 홀아빈가?」하고 중얼거렸더니, 함께간 막내녀석이 책을 읽다 말고 「엄마! 호아비가 무엇이오?」묻는다.

「응, 혼자 사는 남자를 말한단다.」

「엄마, 저 사람 와이프(부인)가 있어요.」

「왜?」

「패밀리(가족)옷이예요.」

「정말 그렇구나!」

못쓰게 된 헌옷이나 헝겊자투리는 쓰레기통 속에 버리지 않고 세탁소에서 걸레들을 보관하는 통속에 넣는 것을 보고 난 또한번 놀랐다. 더군다나 그 남자의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검소한 생활의 일면을 보는듯 했다. 우리나라 남자들이라면 어떠했을까? 마지못해 빨래터에 왔더라도 그냥 여기저기 세탁기에 쑤셔넣고는 혹시 아는 사람 볼쎄라, 마음 조일테고, 건조기에 넣어서 말리는 과정까지 갔더라도 저렇듯 차곡차곡 개켜서 가져가 볼까? 생각해 본다. 또한 함께 왔더라도 우는 아이 달래가며 아내는 빨래를 하는데, 그곳까지 태워다준 것이 전부인양 친구집에 놀러 가면서 "다 되면 누구누구집에 전화해"하곤 휭—하니 꺼져버리겠지.

주중이라, 아마 이 시간엔 사랑하는 아내는 직장에 갔으리라. 아니면 집안일과 함께 아이들과 씨름이겠지. 여가를 이용하여 분신처럼 아끼는 아내의 일을 조금이라도 감해 보려고 저렇듯 자신을 아끼지 않는 마음 씀씀이라….

모든일을 힘을 합해 빨리 끝내고, 그 이후의 시간들을 가족중심으로 역 이용하는 이곳 사람들의 생활태도가 얼마나 밝은가!

애정도 짙어지고, 집안의 화평도 존속하며, 나아가서 그 여운이 사회생활속에도 깊이 파고 들지 않겠는가? 부러운 마음이 찡하게 넘친다.

미래를 향해 대지위에 굳게 버티고 선 삶의 사고방식이 판이하게 다른 그들의 일부분을 이곳 빨래터에서 상상할 수 있을 것 같다.

하기사 오산인지도 모른다. 내가 직시하는 모든 것이 나의 염원이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모든 아내들이 목마르게 사랑하는 남편의 부드러운 손길을 무언중에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의 풍습에 가사는 무조건 주부가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온 우리들 세대의 남편들, 마치 주종관계처럼 군림하는 것만이 대장부의 길인 것처럼 으쓱해 하며, 대범해야 할 때엔 외면해 버리고, 아내에게만 복종을 바라는 남편들이 얼마나 흔한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이민생활에선 부득불 맞벌이해야 하고, 언어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직장에서, 또는 상업경영자일지라도 양어깨를 짓누르는 과중한 노동과 정신적인 압박에서 후줄근히 녹아난 후에 가사를, 그리고 육아와 교육까지 혼자서 감당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것은 명약관화이리라.

출산에 시달리고, 생활에 찌들어 주름살이 훈장처럼 온 얼굴에 빛나는 피곤한 아내가 아니고, 싱싱하고 발랄한 젊은 아내일지라도 집 안팎에서 함께 도우며, 생활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앞장서서 가는 젊은 세대들이 요즈음 우리들 주변에 많은 것을 보니 참으로 대견하다.

세월의 흐름과 주위 환경들이 비판의 눈초리로 우리들 세대를 관찰하면서 차차로 개선해 나가고, 패기만만하게 미래를 향해 꿋꿋이 걸어가는 그들을 볼 때 또한 눈에 설지 않으니 이렇듯 호뭇해지는 것은 여자이기 때문일까?

東国人의 밤

저무는 또 한해를 보내며 보다 깊은 우애와 번영을 기약할 "동국인의 밤"을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읍니다. 부디 부부 동반 하시어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1월27일(토) 오후7시
장 소 : INN ON THE PARK TORONTO(OAK)
1100 EGLINTON AVE. EAST
DON MILLS, ONT. M3C 1H8
(LESLIE & EGLINTON)
회 비 : COUPLE당 $40
연락처 : 844—2922(MR.정)
421—5613(MR.오)
481—9373(MR.김)

재카나다동국대학교
동문회장 정관풍(鄭觀豊)

감사말씀

지난 10월23일 본 협회의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디너파티(토요일저녁을 위하여)를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될 장학기금 증액을 위한 본 협회의 사업및 활동에 배전의 지도와 협력을 부탁 드리며 다음과 같이 모금실적을 알려 드립니다.

1. 일반 장학금
   디너파티 수입금 : $1,664.77
   기부금 : $935.00

2. 개인 장학금
   익명 : $1,000.00(매년 장학금지급액 $100)
   라티크 크라쉬 : $2,000.00(매년 장학금지급액 $200)
   스테픈 쎄프트 : $2,000.00(매년 장학금지급액 $200)
   이경태 도 장 : $3,000.00(매년 장학금지급액 $300)
   이현우 도 장 : $3,000.00(매년 장학금지급액 $300)

총 계 : $13,599.77 1982년11월1일

비영리사단법인 완인태권 무도회

한국일보
우리의 재산은 건전한 신문

民正, 實名制보완 通過키로

證市·秘密보장등 새對策

政府와 정책협의 "留保보다 實施가 덜충격"

金融實名去來制 실시留保와 대폭修正을 검토해온 民正黨은 28일상오 정부측과 고위정책협의를 거친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놓고있는 實名制法案을 당초방침대로 補完, 통과시키기로했다. 實名制를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한지 한달만에 民正黨의 방침이 원점으로 되돌아간것은 實名制를 留保, 연기하는 것보다는 이를 실시하는것이 경제적 충격을 줄일수있다는 정부측 주장에 따른것이다.

당초方針 환원 "국회審議서 副作用 최소화"

이에따라 實名制의 실시보류여부를 협의하기위해 29일 중앙당사에서 열릴예정이었던 黨政정책조정회의는 무기연기됐다.

李鍾贊총무는 28일『정부·여당은 당초대로 實名制를실시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없으며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국회심의과정에서 연구, 검토하게 될것』이라고 밝히고『특히 국회財務委의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實名制발표이후 나타난 자본시장의 위축, 換物투기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등이 實名去來법안에 참작, 반영될것』이라고 말했다.

民正黨의 財務委소속 鄭順德, 金鍾仁, 金鍾基의원등도 實名制가 당초방침대로 국회에서 통과될것으로 본다』면서『다만 심의과정에서 지금까지 나타난문제점을 극소화하는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될것』이라고말했다.

한편 柳瓊賢(民正)의원은 이날하오 財務委에서 질의를통해『실명제는 금융거래의 정상화와 정의사회구현이라는 國政지표에 맞춰위치적으로 실시해야하며 시행과정에서 예견되는 부작용과 逆기능을 극소화하는 제도적 보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해 民正黨이 실명제를 당초방침대로 실시할것임을 분명히했다.

이에따라 民正黨은▲신규예금은 83년1월1일부터 실명제를 적용하고▲既存무기명假名예금은 83년7월1일부터 실명화한다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각종換物투기 대책, 株式시장침체로 발생한 內資동원의 문제점등 축소키위해 무기명가명 預·積金과 마찬가지로 주식등에도 일정기간무기명을 허용하는방안▲租稅목적을 위한 자료제출은 특정인의 조사에한하고 一定額이상 기관장의 서면요구등 비밀보장제도를 엄격화하는 방안등을 첨가할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民正黨 일부에서는 예정대로 實名制를실시할경우 경제전반에 막대한 영향과 부작용을 가져올것이라며 景氣회복등을 위해 여건이 형성될때까지 실시보류나 대폭修正, 또는 국회에 法案을 계류시켜야한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의원총회등을 통해 異見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民正黨은 27일에 이어 28일상오 權翊鉉사무총장 陳懿鍾정책위의장 李鍾贊총무등이 서울시내 모처에서 정부측과 비밀리에 會同, 實名制실시보류여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환원」뒤의 姜재무 民正黨이 實名制재검토를 철회, 당초의 실시방침으로 還元한뒤 財務委에서 姜慶植재무장관이 질의에 귀를기울이고있다.

"한국등 아세안加入을"

말聯집권당 高位간부 주장

【쿠알라룸푸르AP=聯】한국을 비롯 일본·호주·뉴질랜드등 태평양지역 4개국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에 가입돼야한다고 말레이시아 집권당의 한고위간부가 28일 주창했다.

마하티르·모하메드수상이 이끄는 집권통일 말레이국민조직(UWNO) 부총재인 가파르·바바씨는 이날의회에서 이들 태평양지역 4개국이 아세안에 참가, 아세안은 아세안 태평양지역기구(APRO)로 확대 개편돼야 한다고역설했다.

그는 한국등 4개국이 미 선진국대열에 들어섰기때문에 경제·기술및 과학분야에서 아세안을 도울수있다고 말하고 이들국가가 아세안에 참여하게 되면 동남아시아지역의 경제개발이 가속화될것이라고 말했다.

국회7개常委 질의·답변

"銀行비상근理事막아야"

국회는 28일하오 內務 財務 文公委등 7개常委를열고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이는한편 內務委가 지방자치제법안을 다룬것을 비롯, 일부常委는 일반法案에 대한 심사를 계속했다. 豫決委는 이날 追更案에대한 정책질의를 시작했다.

財務委 林栄洪의원(議政)은 금융實名制법안에 대해 당초발표됐던 7·3경제조치가 變形돼 국회에 제출된이유는 무엇인가. 또『무기명·假名 금융자산의 實名化가 우리경제를 파탄으로몰고 갈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金在暎의원(民韓)은『부분實名에 그친 실명제실시는 금융거래의 非정상화와 경제악순환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후『정부가 제출한 실명화법안을 스스로 철회해 다시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은행법개정문제와 財閥의 은행株式寡占현상에 대해 金의원은『은행자본금의 50%이상을 貸出받은 55개財閥기업에 대해서는 3년 時限을 정해 편중대출분을 상환조치함으로써 은행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해소시킬용의는 없느냐』면서『은행의 非상근이사제신설은 大株主의 은행경영지배의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姜慶植 재무장관은 답변을 통해『實名制 실시와 관련하여 實物투기등 부작용이 있는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인경제질서의 정상화와 합리적과세 기반의 조성을 위해 實名制실시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앞으로 實名制 실시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하겠다』고 말했다.

內務委 民韓黨이 제출한 지방자치법개정안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개정안및 국민당이 제안한 지방자치제 실시시기에관한 법률안의 심의에 착수, 지방자치제 실시에 관해 내무부를 상대로 질의를 벌이고 地自制에 관한 토의를 종결했다.

이날 질의에서 金元基 高炳鉉(이상民韓) 趙炳奎의원(국민)은『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한다』는 헌법부칙 10조를 내세워『우선 서울과 직할市등 재정자립도가 성숙한 지역부터 地自制를 실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地自制실시의 이유로 ▲민주주의의 토착화▲올림픽에 대비한 민주국가의 인식고양 ▲중앙집권적 병폐의시정 지방행정의 활성화등을 강조했다.

盧泰愚내무부장관은『지방자치제실시 요건중 가장중요한것은 재정자립도』라고 지적,『地自制실시여건을 빨리 조성함으로써 시기가 앞당겨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醫保 일원화 試案 12월18일까지 노력"

金保社, 保社委서

그동안 醫療보험一元化법안제출과 관련, 野黨의 先時限보장요구로 空轉해왔던 국회保社委는 28일하오 金正禮보사부장관으로부터『12월18일까지 一元化법시안을 제출토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 하오4시30분께 속개돼 보사부소관업무를 보고받았다.

이날 崔永喆위원장이 27일 여야간에 합의한 7개항의 결의는 위원회전체의 의사로서 金장관이 준수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하며 대해 金장관은『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의를 지키기위해 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과학營農·漁船근대화"

全대통령, 농어촌後繼者대회서 격려

【大田=尹國炳기자】全斗煥대통령은 28일『농어촌의 발전은 국가전체적인면에서 중대한뜻이 있기때문에 정부는 이를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갈생각』이라고 밝히고『앞으로 정부는 농어민의소득증대를위해 과학營農의 확대보급과 토지의 이용률을높이는한편 특용작물과 畜産을 포함한 복합營農의육성및 漁船근대화의 지원등에 시책의 역점을두게될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李順子여사와함께 忠南大田市 忠武체육관에서열린 전국農漁民후계자대회에 참석, 諭示를 통해『이러한 시책이 성공하기위해서는 다수확품종의 보급과 배양, 농업용수개발과耕地정리 그리고 농업기계화등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식량절약과 식생활개선운동도 꾸준히 전개해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후계자및 새마을기계화영농단대표들의 성공사례가 발표됐고 후계자등 17명에게 훈장과 포장이, 8개영농단에는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다.

수상자명단은 다음과같다.

◇새마을훈장協同章 ▲黃善河(전북井邑新泰仁) ▲金鍾煥(충남禮山吾可) ◇새마을훈장努力章 ▲車順萬(경기江華河岾) ▲梁基淑(전남光陽光陽) ▲朴相睦(충북鎭川梨月) ▲洪漢貞(충남禮山德山) ▲梁寬錫(경북漆谷技川) ▲李周煥(경남晋陽寺奉) ▲梁裕彦(제주北濟州翰林) ◇새마을포장 ▲崔鎭元(경기華城台安) ▲洪源九(강원春川牛頭洞) ▲李鍾洙(강원春川司牛洞) ▲劉永勳(충북鎭川草坪) ▲金鎭鶴(전북扶安東津) ▲文基錫(전남光州北區東林) ▲鄭相佑(경북醴泉豊壤) ▲李文相(경남巨濟長木長木)

大統領賞에 全北「三童굿놀이」

民俗경연 총리賞 全南「長山島들노래」

【光州=李忠雨기자】28일막을 내린 제2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全北 민속놀이「三童굿놀이」가 영예의 대통령상(상금5백만원)을 차지했다.

대통령상을 받은「三童굿놀이」는 全北南原郡寶節面桃陽里에서 전승돼온 민속예술로 농악, 기와밟기, 동고놀이를 혼합하여 재현한 특이한 놀이다.

지난26일 光州無等경기장에서개막, 사흘동안 전국18개市道에서 19개팀이 참가한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상금3백만원)은 全南민요「長山島들노래」, 문화공보부장관상(상금각1백만원)은 忠南「亭山八邑 길쌈놀이」 慶南「감내(甘川)게줄당기기」, 忠北「陰城거북놀이」(이상민속놀이부문), 咸南「北靑사자놀음」(민속부문), 大邱직할시의「大邱孤山농악」(농악부문)이 차지했다.

独立紀念館건립誠金

우리의 작은精誠: 큰뜻 이루게

<28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在사우디알쿠라사이북샤부라더즈社 한국인 근로자代表 정길수씨외 63명=사우디貨 1만1천4백리얄

▲在말레이지아 한인회 (회장 노형원) 一同=美貨 2천7백34달러54센트 (기탁자명단 10면)

▲在스위스한인회 (회장김정해) 一同=스위스貨3천프랑 (기탁자명단 10면)

▲南盛綜合實業(株) 대표이사 朴石泉씨외 임직원一同=1백85만9천원

▲코오롱綜合電機(株) 대표이사 吉殷培씨외 임직원一同=1백20만5천3백원

▲東大門區 漢醫師會회장 李昌根씨외 회원一同=1백10만8천원

▲在수리남어선원및 주재원 一同=美貨1천1백39달러

▲在호주 한인상공인 연합회 (회장 이배근) =호주貨 1천달러

▲駐시에라리온 대사관직원및 교민一同=美貨1천달러 (대사및직원 3명=5백레온, 정파의 김이봉씨, 선장대선씨, 권영길씨외10명=7백레온)

◇吉殷培씨

在사우디 한국인 근로자 1萬1千리얄

在말레이지아한인회 美貨 2千7百弗

在스위스 한인회 스위스貨 3千프랑

南盛綜合實業 朴石泉대표 外 1백85만원

코오롱綜合電機 임직원 1백20만원

東大門區漢醫師會 일동 1백10만원

在수리남船員·주재원 千百弗

在호주 한인상공인들 1千弗

시에라리온公館 교민 1千弗

▲영보직물 社長 이우철씨외 임직원一同=86만4천원

▲韓國歌謠半世紀作家同志會 會長半夜月씨외一同=50만원

▲(宗團)大巡眞理會忠南 天安市 원성동지구 道人 김선옥씨=50만원

▲海王物産(株) 대표이사 李慶洙씨외 임직원一同=41만5천9백50원

▲서울 東興宿泊業協會 회원一同=41만3천원

▲韓一케스工業(株) 대표이사 張永淳씨외 社員一同=39만6천2백70원

▲教文社 代表柳濟東씨외 직원一同=35만원

▲在獨교민16명=서독貨5백80마르크(기탁자명단10면)

【가리봉 보급소 접수】【西獨支社접수】

영보직물 임직원일동 86만원

歌謠半世紀 作家일동 50만원

大巡眞理會 김선옥씨 50만원

海王物産 임직원일동 41만원

서울東興 숙박업협 41만원

韓一케스工業 임직원 39만원

教文社 柳濟東대표外 35만원

在獨교민 16명 5百80마르크

誠金명단 10面에 계속

地平線

앙드레·지드의 작품중「교황청의 地下道」라는 것이 있다. 原題는 Les Caves du…로 되어 있다. 여기 Cave란는 말은 지하저장실, 혹은 지하혈같이란 뜻으로 새기는편이 나을듯 하다. 프랑스의 집들치고 이「까브」가 없는 집은 없다. 포도주를 상음하는 탓으로 까브는 절대 필요하다. 땅속은 온도가 일정하므로 몇해고 포도주, 샴파녀를 보관할수있다. 또 쓰지않는 오래된 가구도 이 까브로 내려 보낸다. ▼그래서 까브라하면 프랑스사람들에게 그 인상이 어둡거나 칙칙하지가 않다. 그러나 지드작품속에선는 까브내에서 教皇을유폐하고 새교황에 대한 음모를 꾸미기 때문에 음흉하고 삼엄하다. 더구나 이까브는 교황청과 지하로 통하는 길로 연결되어 있었다니 이런점에서「地下道」란 번역도 틀리지는 않다. 하나 이경우의 까브는 정취가 사라진 어두운 땅밑이란 인상 뿐이다. ▼서울 西小門에서 乙支로 6가까지 3.3㎞에 달하는 地下步道가 내년말까지 건설될예정이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지금 건설중인 지하철 2호선에 연해서 폭8.6m, 높이 3m정도의 지하보도를 새로 만들어 시민의 보행교통에 편의를 도모케 한다는 것이다. 그길이로 보아 국내 최초의 매머드 지하보도라 하겠다. ▼「무장애」보도를 가면 눈, 비도 맞지않을뿐더러 가까운거리일때는 택시나 버스를 타지않고 더빨리갈수 있다. 市측은「걷기 운동」도 유도 할수있다고 보고 있다. 또 명랑한 보도가되기 위해 환풍에다 냉방시설을 갖추며 주요 지점마다 출입구를 많이 설치할것이라 한다. 지하보도는 스톡홀름에 길지않으나 넓은것이 있고, 파리에도 몽파르나스에 지하철역간을 연결하는 꽤 긴것이 있다. 여기에는 노면 에스칼레이터까지 설치돼 있어「高速」보행이 가능하다. ▼시에서 시민의 편의를 생각하여 地下보도를 건설한다는데는 반대할 이유가없다. 확실히 큰 발전일듯 하다. 그렇지만 사람이 차에밀려 땅밑으로 기어들게 되었구나하는 생각도 없잖 든다.「지하」를 간다는것이 유모차를 끈사람, 짐을 든 사람 혹은 장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표현서부터 그리 달갑기만한것은아니다. 교통공학에서 말하는「隨時性移動交通」의 양이 구간에 특별히 넘쳐서 그런지 어쩐지는 알수없다. ▼그러나 15.3%에 불과한 서울의 道路率, 24만6천여개나 되는 보도위의 전주, 표지판등 시설물이 사람을 向日性에 아랑곳없이 지하로 내모는것은 아닌는지. 아무래도 도시가 만든 또하나의「問題」현상 같다.

社会漫評

어느길을 가야하나…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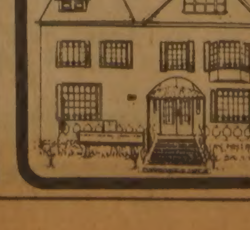
▲ 각종보석
▲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
1560 Bayview Avenue Toronto
(B)488-2444 (R)759-4560

불루어안경

◆ Rodenstock
◆ Zeiss(Marwite)
◆ Christian Dior
◆ Menrad
◆ 안경제조·수리·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
(No Appointment)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Green Shieleld
◆ 정부 보조 안경지정 영업소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합니다.
◆ Contack Lens
※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 4시30분까지
(안과의사 사무실은 본상점과 한 부록 떨어져 있음)
※영업시간 : 월~목 9:30AM~7PM
금 9:30AM~8PM
토 9:30AM~8PM
635 BLOOR ST. W
☎ : 531-2236(B) 886-0722(R)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장의사>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종합보험

김 흥 람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주택, 상점보험
●사업보험
●R. R. S. P.
●INCOME AVERAGING ANNUITY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961-3774(B)
277-8733(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생활안정금고

戰後세계와人物

닉슨이 본 激動現代史의 主役들★ <9>

新生國 지도자들

엥크루마 수카르노

과잉의욕이 政·經혼란 불러

女性편력으로 이미지 먹칠

1957년 나는 검은 아프리카 식민지대륙에서 최초로 독립을 쟁취한 가나의 독립기념식에 미국대표로 참석했다。

가나의 독립운동 지도자 크와메·엥크루마는 미국의 링컨대학과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수학했다。당시 가나의 평화적 독립은 영국의 「창조적인 포기」정책의 소산으로 꼽히고 축복받았다。세계최대의 코코아생산국인 가나는 튼튼한 경제와 교육받은 엘리트를 갖고 있었다。

오늘날 가나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재난에 휩싸인 나라가 되었다。이같은 비극의 주된 원인가운데 하나가 엥크루마의 존재였다。그는 혁명을 이끄는데는 눈부시게 성공했으나 국가를 건설하는데는 지독히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윈스턴·처칠은 프랭클린·루스벨트대통령이 자신의 反식민주의 열망때문에 영국과 프랑스등 식민세력들로 하여금 너무 일찍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철수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내게 말한적이 있었다。

처칠은 자주정부야말로 모든국가들의 권리라고 믿었지만『민주주의는 가장 운영하기 어려운 정부형태로서 주민들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그들이 직면하게될 문제들을 처리할수있기 위해 여러해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를 잊지않았다。

독립기념식에 참석한 다른 미국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나도 가나의 민주주의에 낙관적이었다。내가 마틴·루터·킹목사를 처음 만난것도 이 때였는데 그와는 밤을 새워가며 가나의 장래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나는 킹목사의 知的이고 객관적인 평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가나는 민주주의를 해내야한다。세계는 아프리카 최초의 독립국가가 성공적으로 자치할수있을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할때 킹목사의 눈동자는 빛났다。

엥크루마는 미국민주주의에 대해 깊은 찬사를 표했다。내가 미국정부의 선물로 기술도서관을 증정하자 그는 기뻐하면서『이 선물이 서구의 선진과학문명을 아프리카에 심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에이브러햄·링컨이 자기가 영웅으로 삼는인물중 하나라고 말하면서 링컨식 민주주의를 가나의 정치 경제 사회여건에 적용시킬 작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독립기념식이후 가나는 연속되는 재난에 휩싸였다。엥크루마는 현대화의 상징인 댐과 공항등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퍼부었다。또 경제적독립을 추구하기위해 수입을 금지시켰고, 산업을 국유화했다。

그는 자신을 가나의 아버지로서 뿐아니라 아프리카 독립의 아버지로 자처, 아프리카단결기구(OAU)창설및 다른나라의 독립운동에도 많은 돈을 썼다。

엥크루마의 反서방 偏執病과 무력적인 汎아프리카주의는 가나가 서방 산업국가들과 긴밀한 유대로 덕을 볼수있을 시기에 더욱 확대됐다。60년대 중반 코코아가격의 폭락으로 가나는 더이상 버틸 여력을 상실했다。

1964년 그는 야당을 불법화하고 비판자들을 투옥했다。그리고 2년뒤 코코아가격폭락에다 과중한 개발비투자로 가나경제가 흔들리고 있을때 엥크루마는 北京을 방문중 군사쿠데타로 권좌에서 쫓겨났으며 72년 망명지인 기니에서 사망했다。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대통령도 엥크루마처럼 독립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개성이 강한 지도자였다。그 또한 엥크루마처럼 독립쟁취후의 인도네시아를 부흥시키지 못했다。파괴는 할수있었으나 건설은 할수없다는 것이 두사람의 공통점이었다。30년대에 걸쳐 수카르노는 식민종주국인 네덜란드에 의해 여러차례 투옥과 추방을 당했다。이같은 체험이 그에게 결코 극복될수 없었던 원한을 남겼다。인도네시아공화국이 수립된 후에도 네덜란드領 뉴기니문제를 둘러싸고 네덜란드와 혁명투쟁을 계속했다。

53년 내가 그를 처음 만났을때 그는 인도네시아 국내문제가 아니라 뉴기니의 영토문제로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했다。

60년대초 그는 뉴기니에 대한 공격을 명령, 마침내 뉴기니를 점령했다。그러나 그의 위대한 승리는 수치가 안맞는 승리였다。그뒤 몇해안 뉴기니문제에 골몰해있는동안 공산당은 인도네시아의 빈곤, 中共과의 관계증진, 그의 유화적 태도등에 힘입어 더욱 강성해졌다。

그는 스스로 반공주의자라고 주장했다。50년대중반 수카르노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나는 공산주의를 염려하지 않는다。공산주의를 요리할수 있을만큼 나는 강하다』고 호언했다。

그러나 65년 공산주의자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이 쿠데타는 군부에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됐지만 군부는 66년 그를 가택연금시켰다。그리고 4년뒤 그는 죽었다。

수카르노는 가난한 국민들을 물질적인 번영으로가 아닌 상징적인 환상의 富로 부추기려 했다。

그가 구상만했을뿐 실현을 보지 못한 5천1백페이지에 달하는 경제계획은 8권17장 1천9백45항목으로 돼있었는데 이는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1945년 8월17일을 기념하기위해서였다。

나는 수카르노가 흐루시초프에게 거대한 스타디움을 지을 돈을 요구했다는 흐루시초프의 회고록을 읽고 놀라지 않았다。

흐루시초프는 그가 식량이나 무기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 의아했지만 수카르노는 거대한 군중을 한데 모을수있는 장소를 원했던 것이다。

◇결혼을 여섯번이나 하는등 여성편력도 다채로왔던 수카르노。

◇1957년 가나독립기념행사에 참석, 엥크루마(右)를 만나고있는 닉슨。

兩人모두 革命엔 성공、經濟엔 실패

수카르노는 보다 단순한것을 좋아하는 면도 있었다。그는 나에게 대통령궁내 외빈용 목욕실에 현대식샤워장치와 구식의 물통이가 있는데 자기는 후자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낭비적인 생활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빈민층과의 관계를 두텁게 유지했다。

정치생애를 통해 나는 만나는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거나 얘기를 나누는 것을 항상 즐겨했고, 내가 만난 지도자들 특히 아시아지도자들은 이런 행동을 경박하다고 생각했다。그러나 수카르노는 그렇지 않았다。그와 인도네시아 농촌을 여행하면서 우리는 그가 가난한 농가에 들러 손수 감자를 튀기는 모습을 볼수있었다。1956년 그가 미국을 방문했을때 나는 그를 안내한적이 있었는데 그가 군중속에 뛰어들어 악수와 포옹을 하는통에 경호원들을 당황케한적도 있다。

얼마전 내가 튀니지의 부르기바대통령과 만났을때 수카르노에 관한 얘기가 화제에 올랐다。내가 수카르노는 위대한 혁명지도자라고 말하자 부르기바대통령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부르기바대통령은 수카르노가 일본을 업고 권력을 잡았다는 점을 그첫째이유로 꼽았다。

부르기바대통령은 이어『그가 튀니지를 방문했을 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수카르노는 할얘기가 많았음에도 대뜸 여자부터 요구했다』고 말했다。최소 6번의 결혼경험이 있는 그의 여성편력과 왕성한 성욕은 많은 루머의 소재였다。인도네시아방문에 앞서 있었던 국무성 브리핑도 이점을 강조했으며 섹스에 관한 아첨의 소리를 그가 좋아 한다는 것을 암시했다。

美·蘇,極東주둔軍 增強

日정부소식통 군사對決場으로 변모

캄란灣에 艦艇 12척배치 蘇

東海훈련 주력航母 참가 美

◇요江西岸도시 巡察하는 이軍 이스라엘軍人들이 27일아침 이스라엘이 점령중인 요르단江 西岸의 최대도시 나블루스의 중심가를 순찰하고있다。26일 이곳에서는 反이스라엘시위사태가 발생,한 팔레스타인 소년이 총에맞고 사망했다。【나블루스(요르단江西岸) 27일 AP電送=聯】

【東京=聯】미국과 소련은 최근 극동주둔군사력을 각각 증강시킴으로써 이곳을 그들의 군사력대결장으로 변모시키고 있다고 일본共同통신이 27일 日정부소식통들을 인용, 보도했다。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이들 소식통들은 미국과 소련이 유럽및 중동지역이 소강상태를 유지함에따라 얼마전부터 극동지역주둔군사력을 증강시킬수 있는 여유를 갖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소련이 극동에 약 50대의 백파이어폭격기를 배치시키고있으며 이들중 30대는 바이칼湖 서쪽의 벨라야기지에, 나머지 20여대는 사할린섬 맞은편에위치한 알렉세예프카기지에 각각 주둔시키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련이 또한 베트남의 캄란灣에 12척의함정을 영구배치시켰으며 지난 81년부터는 이곳을 그들의 공격용원자로잠수함의 기항지로 병용하기 시작한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지난 8월초 공격용원자력잠수함 3척을 포함한 5척의 소련함이 이곳에 일시 기항중인 것이 목격되기도했다고 강조하고 소련이 이밖에도 캄란과 沿海州간에 베어정찰기를 비행시키고있다는 사실도 탐지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미국의 경우 최근 북태평양과 동해해상에서 일련의 해상군사훈련을 실시했음을 상기시키면서 특히 얼마전 알류샨열도인근해상에서 실시된 훈련에는 미7함대의 주력인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號및 미드웨이號를 포함한 10척이상의 함정이 참가했었음을 강조했다。

海軍함정 30%늘려

美해군장관 軍港도 추가建設

【워싱턴AP=聯】미해군은 80년대말까지 해군함정수를 30%늘리는 동시에 적의 공격에대한 취약성을 경감시키기위해 미국내에 군항을 추가 건설할것이라고 존·레먼해군장관이 27일 밝혔다。

레먼장관은 이날 AP통신과의 회견에서『미국은 1989년까지 7년동안 1백40척의 함정을 늘려 총 함정수는 6백척에 이르게될것』이라고말하고 제한된 해군모항에 함정을 계속집중시킴으로써 적의 유리한 공격목표가되는 것을 피하기위해 군항수를 늘릴것이라고밝혔다。

對中共和解최선

브레즈네프 美外交는 利己的

【모스크바AP UPI=聯】소련최고회의 간부회의장겸 당서기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75)는 27일 중소관계정상화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미국의 對外정책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한편 소련의 항구적인 전투대비태세 강화를 촉구했다。

브레즈네프는 이날 크렘린궁에서 열린 소련군 최고지휘관회의에 참석, 연설을 통해『우리는 對중공관계정상화를 진지하게 추구하고있으며 이를위해 가능한 모든일을 하고있다』고 말함으로써 금년들어 3번째로 중소관계정상화의중요성을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공측의 對蘇자세에 일부 새로운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소련은 결코 이를 소홀히해서는 안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의 외교정책이 모험적이고 이기적인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전세계국민들이 세계를 核戰의 위험으로 밀어넣고있는 미국의 침략주의정책에 항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教皇廳·中共간 和解촉구

教皇 "對話재개 經路마련確信"

【바티칸시티ANSA=聯】교황 요한·바오로 2세는 25,26양일간에 걸쳐 교황청과 중공간의 화해를 촉구했다。

요한·바오로 2세는 4백년전 로마가톨릭과 중국간의 관계를 여는데 선구적 역할을한 마테오·리치예수회신부를 추념하는 로마의 한 행사에서 강연을 통해『교황청과 중공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제거되고 양측간의 대화를 재개시킬 적절한 경로가 마련될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국漁船 불법操業

日마쓰노 또 妄言

【東京=聯】日本교과서왜곡사건과 관련, 安重根義士에 대한 모독발언등으로 물의를 빚은바있는 마쓰노(松野)국토청장관이 이번에는 또다시 한국어선들이 日本영해에서 산호를 비밀리에 불법채취하고 있다고 아무 근거도 없는 주장을 내놓음으로써 말썽을 빚고 있다。

마쓰노국토청장관은 지난 27일 日本西海의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에서 한국과 臺灣의 어선들이 산호를 몰래 채취해가고 있다면서 이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발언을 한바 있는데 일본외무성 당국자는 28일『한국어선들이 이 지역에서 산호를 몰래 따가고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마쓰노장관의 발언을 부인했다。

가다피 곧平壤방문

【서울=聯】무아마르·알·가다피 리비아혁명평의회의장 일행이 中共방문에이어 平壤을 공식방문케될것이라고 北韓방송들이 28일 보도했다。

한국일보詩壇

獨立門 네거리에서

李洋雨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번씩은
무악재를 넘는 좋은 버스 길
나의 출근길에서 스쳐 만나는
민족 독립의 門。

나는 날마다 하루 두번씩은
감격의 네거리를 지난다。

마음 마저 숙연해지는
우리들의 門、
독립 만세 흐이어린
성스러운 네거리를、
날마다 하루 두번씩은
가슴이 떨린다。

감격의 그날을 되새겨보는
우리들의 독립門。

法廷飛火

日自民총재 豫選戰

TV放談불씨 명예 훼손 告訴

野黨측에선 保·革聯政도 제기

자민당의 총재예선은 保革연합정권론이 튀어나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사태가 벌어지는등 초반전부터 격전양상을 펴고있다。

명예훼손소송의 발단은 일본에서 가장유명한 독설가로 이름을 날리고있는 정치평론가인 호소가와·류켄씨(細川隆元·81·아사히신문前브라질특파원)와 후지하라·히로다쓰씨(藤原弘達·70·前明治大교수)의 TV시사방담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매주 일요일아침8시반부터 30분동안 채널6TBS·TV에서 시사방담을 해오고있으며 이프로의 시청자는 5백만명을 넘고있다。이들의 독설은 현직수상은물론 각료등에 대해서도 바까야로(바보자식)로 시작하여「바까야로」로 끝나기때문에 이들의 입초시에 한번 오르면 뼈도남지않는다는 평판이 날정도로 정치인들은 이프로에 벌벌떨고있다。

일요일인 지난 24일 때마침 총재 예비선거가 초반전에 들어갔기때문에 시사방담에서 총재선거가 거론되었다。먼저『고오모또(河本)가3백억엔을 뿌리고있다』『후꾸다(福田) 기시(岸)前수상이 고오모또에게 매수되었단」는 얘기로 대담은 막을 열었다。

후지하라씨는『후꾸다씨가 도꾸가와幕府때 장군을 막후에서 도운 미또(水戸)의고오몽(黃門)이되겠다고말했으나 고오몽은고사하고 고오몽(肛門)이됐다。肛門에서설사를하고 말것이다。집권하겠다는 老欲이 꼬리를 드러내다가망신만 당하고 말았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이어『내가 입수한정보에 의하면 후꾸다나 기시가 고오모또에게 매수당했다는 설이 있다』고 말했다。

호소가와씨가 이를 받아『내가 아는 무소속의원에게 고오모또측에서 밀사가 와서 3백억엔의 운동비를 준비하고 있으니 자금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들은『바보같은 스즈끼수상이 정치파산으로 수상을 그만둔 송장이 되었으며 이번 정치政變의 주범은 스즈끼다』『최고고문들은 모두 양로원으로 보내야한다。노망이든 前수상들이 모여 무슨 수상을 정하느냐』고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을한뒤『「바람개비」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나까소네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다」고 나까소네추대론을 들고나왔다。

나까소네의 정적인 고오모또진영이 분개하고 나선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3백억엔이 준비됐다는 루머도 문제일뿐더러 나까소네를 일방적으로 추대한데대해 분개했다。

고오모또씨는『정치적으로 생사를건 총재예비선거 기간중에 헛소문을 사실인것처럼 공공전파를 통해 퍼뜨리고특정후보를 추대하는것은 정치도의상 있을수없다』면서 26일 東京지검에 명예훼손으로 두사람을 고발했다。

뿐만아니라 TBS·TV에도 사실이 아님을 들어 정정방송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호소가와·후지하라 두사람은『고오모또의 돈이 날뛰고 있다는것은 세상이 다아는 비밀이며 구체적으로 무소속의원에게 고오모또 진영에서 파견한 의원이 선거자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말라고 얘기한것은 필요하다면 공개하겠다』고 응수하고『국민의 한사람으로 자민당총재에 누가 적합한가를말하는것은 기본권이다』면서 고오모또의 고소내용을 일축했다。

자민당 파벌간의 총재선출을 둘러싼 싸움이 격화되자 사회당을 지지하고있는 總評과 민사당 그리고 社民聯이 保革연합정권론을 들고나와 예비선거를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

마끼에다(槇枝) 總評의장은『헌법을 지키고 정치윤리를 확립하며 국민생활권을 보호한다는 세가지 원칙만 확인한다면 보수당인 자민당의한파벌과 總評이 연합하여 정권을 수립할수도 있을것」이라고말했다。

그는한걸음더나아가『고오모또씨가 연합정권의 3가지 원칙에 합의한다면 고오모또씨를 지지할수있다』는 의향을시사,큰파문을 일으켰다。

민사당의 사사끼(佐佐木)위원장도『자민당이 수상후보를 단일화하지못하고 두사람을 내놓으면 그어느한쪽을 지지하여 연합정권을 수립하겠다』고 발언, 保革연합정권론에 가세했다。

그러나 좌경 노동조합에서는『지금 자민당과 연합정권을 수립할 시기가 아니다。자민당의 체질이 변하지않는한 누가 정권을 잡든간에 保守정책에는 변함이 없을것이라고주장, 保革연합정권론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總評의 保革연합정권론은 사흘만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그러나 總評의 도미즈까(富塚) 사무총장은 26일 保革연합정권론대신에 자민당의 일부혁신세력을흡수할 政界개편론을 들고 나왔다。

그는『자민당의 파벌싸움으로 양심적세력일부가 자민당을 이탈한다면 이를 계기로 정계개편을 이룩할수있도록 적극 호응하겠다』고 政界개편론의 이유를 밝혔다。

야당측의 政界개편론은 자민당의 절대다수에의한 고정적정치상황을 타개하는 의욕으로 보이나 그 실현성은 아직 희박하다。【東京=宋孝彬특파원】

海外토픽

僞善은 政治한부분

★닉슨 대통령도 간혹거짓말

대통령이란 간혹 자기의 소신과는 다른 말을하는 경우도있지만 이것을 부도덕한 의도에서 나오는 거짓말로만볼수는 없다고 리처드·닉슨 前美國대통령이27일말했다。

닉슨씨는 이날 ABC·TV 방영한 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위선은 정치의 한부분이며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위선이필요한경우도종종있다고말했다。

그는 이어 장래에 이용할지도 모르는 사람이나 꼭 필요한 사람을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할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한다면서 정치생활에는 많은 위선이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것이라고 주장했다。【뉴욕=AP】

시금치有害論 주장

★많이먹으면 신장結石 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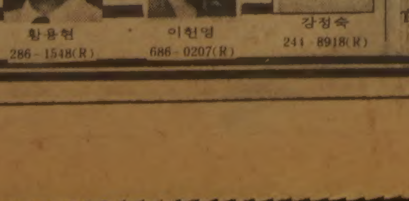
TV화면에서 뽀빠이가 발휘하는 怪力의 근원인 시금치를 다량 섭취할경우 腎臟結石을 일으킬수도 있다고 日本 도야마(富山)縣 위생연구소 사까이·드시로부소장이 27일 밝혔다。

사까이부소장은 시금치가 풍부한 철분과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칼슘섭취를 방해하는 蓚酸(칼륨酸으로 식물속에 들어있는 무색결정)이 다량함유되어있어 腎臟結石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후꾸오까=朴】

미용실 스타
파마 / 염색 / 헤어컷
예약전화 : 741-4410 (집) 742-6827
영업시간 : 9:00 A.M.- 8:00 P.M.
〈일요일 월요일은 휴업〉
2437 FINCH AVE. W. WESTON, ONT.
(Finch main Plaza) 〈주차장 완비〉
741-4410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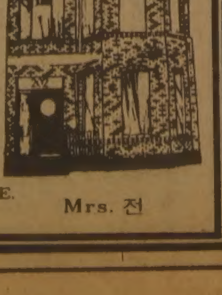
★VARIETY STORE
주매상 $7,000, Rent $2,350, 4년, 5년옵션, 가격 $75,000
주매상 $11,000, Rent $1,149, 3년, 10년옵션, 가격 $155,000
주매상 $14,000, Rent $3,707, 7년, 10년옵션, 가격 $225,000
주매상 $5,500, Rent $1,970, 1년, 8년, 5년옵션, Asking $50,000
★상용건물
1)Bloor 한인상가에 위치한 4 Bedroom 아파트와 1000SQF되는 새로 단장된 빈 상점이며, 한인을 위한 사업장소로 최적, $55,000 다운, Asking $142,500
2)Dry Cleaning 상점이 있는 대형 3 Bedroom달린 벽돌건물 사업과 함께 매도, 필딩 가격 $170,000,
★상용건물과 VARIETY
1)Variety 주매상 $7,000 1Bedroom 아파트4채, $200,000 다운, 가격 $430,000(건물+사업)
2)Variety 주매상 $11,000 1Bedroom 아파트5채 $150,000 다운, 가격 $400,000(건물+사업)
3)Grocery 주매상 $6,000 2 Bedroom 아파트2채, $70,000 다운, $255,000(건물+사업)
★TAVERN과 식당
1)년매상 $1,000,000, Rent $3,500, 3년, 10년옵션, $100,000 다운, 가격 $350,000(Building도 바로 팔수 있음)
2)년매상 $260,000, Rent $1,575, 1년, 5년옵션, $50,000 다운, 가격 $145,000
★BAKERY
Hunts Bakery: Shopping Center내에 새로 Open, 매상이 날로 증가, $40,000 다운, 가격 $135,000
★DRY CLEANING
년매상 $55,000, Rent $1,100, 5년+5년, 가격 $40,000
★DONUTS SHOP
1)주매상 $7,000, Rent $3,400, 4년, 15년옵션, 월 $5,000 Net로 과외수입 있음, 가격 $270,000
2)주매상 $8,000, Rent $2,500, 4년, 10년옵션, $150,000 다운, Asking $330,000
3)주6일(일요일 닫음), 하루12시간만 하는 Donut Shop, 년순수익 약 $50,000, 가격 $125,000
★SHOPPING MALL
1)Smoke & Gift Shop 6개월전 Open, 주매상 $4,000, 가격 $55,000
2)Gift Shop및 Hobby Claft Shop 몇개 있음.
★주택 1)Scarboro 방갈로, 4 Bedroom 지하실이 잘 꾸며짐, Fire Place, Sauna, Wet Bar, 가격 $124,900
2)고급주택 $100,000 $120,000 $150,000 $200,000 $250,000
※이 좋은 조건으로 North York, Don Mill 에리아에 많이 있으니 문의바랍니다.



황용현 286-1548(R)
이현영 686-0207(R)
강정숙 241-8918(R)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SUITE G5 DON MILLS
TEL(416)449-8644~5(B) · 286-1548(R) M3B 1Z3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타 스토레이지(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화,수,토
9:00~9:00 목,금
202+208 SPADINA AVE.
☎ : 363-6077
Mrs. 전

한국일보 특집판

焦點

國富도 國防도 科學萬能시대… 세계의 「産業스파이」攻防

"尖端技術을 지켜라"

開發은 뒤져도 훔치는데는 選手

상업용 기술이 군사용으로 轉用되는것은 동전을 뒤엎는 일만큼 분명하면서도 쉽다. 그것은 현대무기체제가 운반수단(미사일)+파괴력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왔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운반수단의 개발은 필연적으로 원격조종 기술이 좌우하기 때문에 誘導장치는 더욱 정교하고 고성능화되는 길을 밟아왔다. 컴퓨터산업이 특히 각광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사일이 머리에 얹고 들어다닐 核에 의한 破滅을 두려워한 東西진영은 보합가지 상대방의 사소한 동정뿐아니라 마음까지도 얽어내는 고도의 첩보술을 익혀왔다. 첩보의 생명은 상대방에게 탄로되지 않는데있다. 그러자면 그장비는 작을수록좋다.

진공관의 우둔한 增幅효과에 답답증을 참다못해 50년대말에 개발한 集

蘇聯의 스파이作戰

積回路(IC)가 자꾸만 기억용량이 커져서 이젠 손톱에 얹어놓을만한 칩하나에 12만개의 기억素子를 축적하는 LSI(超大規模集積回路)가 출현할만큼 장비는 작아지고 더 작아졌다.

더욱 精密해지고 微細化해져야하는 조급한 필요성때문에 마이크로(微)전자산업의 메카 실리콘 벨리가 소련이 벌이는 첩보활동의 1급지가 된것은 당연하다. 또 이번 COCOM회의에서 생각보다 많은 2만명도 넘는 소련민간인및 정보요원들이 西方기술을 사들이거나 훔쳐내어 군사용으로 사용하기위해 암약하고 있으니 이들의 행위가 정말로 위험水位에 올라있다는 경고가 엄포만은 아니라는 느낌을 주고있다.

소련은 核파괴력이야 미국보다 훨씬 많이 제조해 놓았으나 그걸 표적에 정확하게 命中시킬수 있는 기술은 아주 뒤져있다. 그래서 안달이다. 이기술수준의 차이를 원래 8~9년으로 추정했으나 요즘은 2~3년으로 좁아졌다는 결론을 서방첩보기관들은 내리고 있다.

그게 소련자체의 개발보다는 서방쪽에서 훔쳐내어서 빚어진 결과란는데 警鐘은 더욱 높다.

美상무성 에이전트는 지난7월 로스앤젤레스공항에서 행선지가 영국으로 돼있는 화물하나를 적발, 선적금지조치를 내렸다. 서류상자 크기의 이화물은 인공위성이 촬영한 사진의 정밀判讀능력을 고도로 높인 컴퓨터化한 영상처리체제였다.

7만달러짜리 이 화물은 놀랍게도 미국이 판일이 없는 소련에서 修理를 위해 재반입된 물품이었다. 수년전 영국 빅커즈社로부터 불법으로 사들여서 사용해온 소련은 이장비가 고장을 일으키자 다시 빅커즈社에 의뢰, 미국에 修理를 하러 보냈다가 덜미를 잡힌 것이다.

실리콘溪谷비롯 諜者 2萬명…3角入手도
美製精密장치로 미사일·潛艦등 性能높여

이사건은 IBM이 서독에 판 C380컴퓨터가 소련에 흘러들어 갔다가 附品주문을 하는 바람에 유출사실이 들통난 사례의 再版이었다. 폐쇄사회의 한계 때문에 그런 부품 하나 만들어 끼울 수 없고 또 수리할수 없어서 소련이 망신당한 대표적 케이스다.

그러나 주어서 정말 큰 禍가 되고 만 끔찍한 사례가 바로 미국브라이언트社製 정밀볼베어링과 컴퓨터장비다. 소련은 무순수로 이것을 입수해서 대륙간 다탄두미사일(MIRV) SS18에 부착해서 미국의 ICBM 미니트맨 사이로를 반경 1백80m 이내로 명중시킬 만큼 성능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소련은 그밖에 서방기술 덕분에 타이푼과 알파급 잠수함의 속도를 더해주고 더욱 깊숙이 잠수할수있게 되었고, 미국에서 불법구입한 레이저장비를 이용, 미국 최강의 對전차미사일TOW를 무력화할 신무기를 개발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저의 경우 캘리포니아의SPAWR社가 禁輸규정을 어기고 소련에 정밀 레이저鏡을 판결과 그것이 소련의위성파괴 레이저무기를 만드는데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텍사스의 한석유채굴장비생산업체가 판 地震탐지장비는 소련에들어가자 전함에 부착, 서방잠수함의 위치파악에 활용되고있다.

그런가하면 미국이 동해안에서 건져낸 소련의 전자浮標를 분해해본결과 그속의 컴퓨터회로가 바로 3년전 미국에서 개발한것임이 판명되었다. 그것은 소련이 얼마나 빠른시일안에 미국의 기술정보를 입수하는가를 웅변해주는 상징이었다.

그러고보면 70년대초 닉슨-브레즈네프 회담후 민간협력형태의 일부로 미국이 제공한 기술로 질(ZIL) 트럭을 제조, 아프간 침공군들이 타고들어온 사실정도는 전혀 놀랍지않게 되어있다.

이마당에 소련이 가장 눈독을 들이고있는 표적은 초대규모 집적회로다. 일본도 이미 개발한것으로 알려진 이것을 입수하면 소련은 전투기에 장치된 레이다무게를 16분의1로 줄일수있고 현재의것보다 신뢰도를 1천배나 높일수있다는것.

레이다장비의 무게가 가벼워지면 그만큼 작전반경이 넓어지고 미사일을 더실을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때문에 학원의 자유보장을 國力신장의 촉매제로 여기는 미국이지만 소련은 물론 中共과학자들의 연구실 접근을 막고 세미나참가의 길도 제한하는 판국이 되었다.

연구에 매달리는 학자들이야 실적토론을 하자면 입이헤프게 마련인만큼 그런 여지를 애초부터 없애버리자는 強攻策을 레이건행정부는 쓰고있다.

COCOM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공산권으로 정밀기술 유출이 끊이지 않는데는 캐나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등 비회원국들이 한몫을 하고있다.

이익추구에 혈안이 된 미국업자들은 COCOM의 禁輸품목이라도 일단 이들국가에 반출한다음 東歐圈으로 흘려보내는 편법을 이용해오고 있다. 그이면에는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는 공산권의 마수가 뻗쳐있다.

소련은 업체들의 건강도를 엿볼수 있는 銀行 매입공작까지 펴면서 광범위한 첩보망을 늘어놓고 돈과 섹스에 협박을 곁들인 스파이 공작을 벌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리고 下手人격으로 東獨을 즐겨 내세우고 있다는것이다.

소련은 西方의 개방·자유경쟁체제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는것이다.

소련은 또하나 민간기술이 군사기술을 훨씬 앞질러가는 현실을 놓치지않고 이용한다. 미국만하더라도 도합1만1천개 업체가 국방성의 개발과 용역에 참여하고있다.

이들 업체직원가운데 1급비밀소지자가 12만명에 이른다는건 이상하지가 않다. 문제는 국방성이 강조하는 기밀을 상업차원에서 사사건건보게마련인 이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지켜주느냐다.

기술우위의 미국이 첩보人力면에서 열세를 만회하기위해서 부산을 떠는데는 그럴만한 이유는 있는것같다.

◇초정밀 集積回路 美·日간 반도체전쟁을 몰아왔고 소련기술스파이들이 미친듯이 챙기는 「64K램」 실리콘칩。 손가락보다 작고(사진㊤) 아프리카產 불개미만한 (사진㊦) 이 칩은 초정밀集積회로로 이속에 6만4천가지 정보를 기억시킬수있다。【AP】

美、禁輸品추가 「부메랑效果」 제거
西歐 "간식류나 팔란말이냐" 반발

COCOM 秘密회의

『기술은 좋은 물건 만드는데만 쓰이는건 아니다. 기술은 전쟁을 막는데 더 유용하게 쓸수있다』

대강 이런 결론을 모아놓고 지난4일부터 이틀간 파리에선 아주 비밀스런 모임이 있었다. COCOM 비상회의다.

COCOM이라면 對공산권수출통제조정위원회의 약칭이다. 이 기구는 東西가 냉전으로 얼어붙기 시작할 무렵인 1949년 발족됐다. 파리에 본부를 두고있는 COCOM은 유엔이나 그밖의 국제기구처럼 상설조직은 없다. 국경지대 간이역처럼 생각날때 만나서 국경저편으로 팔아서는 안될 물건은 무엇인가 귀엣말만하고 헤어지면 그만이니까.

국경저편은 처칠이 만들어낸 「철의장막」저편은 모두 해당된다.

COCOM의 회원국은 모두 15개국. 아이슬란드만 빠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모두가 여기에 들어있고 기술과 장삿속으로는 작은[illegible]스」을 자처하는 일본도 끼어있다.

이번 COCOM회의는 미국측발의로 긴급소집되었다. 그러나 프랑스외무성이나 파리주재 미국대사관 어느쪽도 이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확인해주지 않을정도로 이번회의 역시 비밀의 아성에 묻혀있었다.

사이사이로 흘러나온 정보에 의하면 미국은 국무성이나 상무성은 물론이고 국방성과 에너지성에서까지 차관보를 1명씩 차출해서 중량급 사절단을 이대회에 파견했다고 한다.

이들은 분명 미국측 구상을 군말없이 회원국들이 받아들이도록 동원된 공격조임에 틀림없다.

또하나 확인된건 COCOM이 해마다 끼워넣었다가 눈치봐서 뺐다하는 對공산권 禁輸品목록에 미국측이 새로 작성한 새품목을 추가하려고 한다는점이다. 그런데 그 품목수가 너무많아서 자칫하면 西歐동맹국들을 살림을 망칠정도가 될지모른다는 불만도 들렸다.

미국이 제시한 목록을본 프랑스관리들은 만일西歐제국이 미국 페이스에 말려들었다간 공산권에 팔아먹을것이라곤 간식류나만들어먹을 제한된 곡류밖에 없을것이라고 아우성을 쳤다고한다.

미국이 이번에 특히 뒤머리에내놓은 禁輸후보품목은 컴퓨터 마이크로 전기공학관련 고도정밀 제품이 대종을이루고있다. 하나같이 부피는 적으면서도 엄청난 달러를 벌어들일 품목들이고 특히 부르는게 값이랄정도로 소련측이 탐을내는 품목들이다.

서방에서는 이미 낡아진 상업용으로 보급돼있는것마저도 소련에 못팔게하는 이유는 뻔하다.

레이건의 미국제1주의때문이고 소련에 기술을 대주지 않는것이 세계에서 전쟁을 예방할수있다는 역시 레이건특유의 平和이론때문이다.

西方이 돈받고 넘겨준 정밀기계 소련이 미사일이나 첩보장비에 부착해서 거꾸로 西方을 노려본다는데 악용한사례를 여러개 거머쥔 레이건행정부로서는 던진사람에게 화살이 되돌아오는 이른바 「부메랑效果」를 원인부터 제거하자는 것이다.

레이건의 그런 논리는 연초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시베리아 천연가스管건설장비수출논쟁에서 실체를 이미드러냈었다.

프랑스, 서독, 영국등 西歐국가들은 그러나 미국쪽 아우성에다 가혹한 보복을 당하면서도 소련에 가스加壓장치도 팔고 터빈도 팔았다. 그 뒤끝이라 퍽차 서먹한 자리이고 西歐측에서 순순히 들어줄것같지는 않지만 레이건은 첨단기술의 對蘇유출은 기필코 막겠다는 결의를 갖고 이번회의를 소집했다.

레이건은 원래 소련에 가스管건설장비를 팔지말라고 西歐국가들에 종용할때도 부메랑 效果를 경고했었다. 즉 서유럽이 가스공급을 보장받고 장비를 팔아 수입을 올리는것도 좋지만 일단 가스관이 건설된뒤 소련에 굴러들어갈 막대한돈 1천5백억달러의향방이 어디겠느냐는 의문을 던져주었다. 그리곤 그돈이 결국 군비증강에 흘러들어가 西方을 지배하려들것이라는것이 레이건 경고의골자다. 이것은 「사회복지 타령을 하지만 코작氏의 군화에 짓밟히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공격해서 社民黨정권을 쓰러뜨리고 집권한 서독基民黨의 헬무트·콜당수의 이론과 엇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

미국은 이번 파리회의에서 하나의 흥정거리를 제시한것 까지는 알려졌다. 돈에 궁한 西歐동맹국들이 기왕 가스관 장비를 소련에 팔기로 작정한 이상 이를 사후 용인해주는댓가로 미국측이내놓은 禁輸품목을 모두받아들이라는 조건이다. 이런조건에도 가장 반발이 심한 나라는 프랑스다. 미테랑 사회당정권이 들어선지 1년반이 되도록 악성 불경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프랑스는 東歐圈과의 교역에 死活을 걸고 있기때문이다.

이보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서독이나 영국에서도 시베리아 유전개발로 한몫 잡아보려는 일본역시 적잖은 반발을 보였으리라고 생각된다.

COCOM회의에 앞서 미국은일본과 西歐에 나가있는 미국계 子會社들에게도 컴퓨터와 마이크로전자공학등 정밀제품을 제3국에 팔때는 美상무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못박았었다.

기술정보가 군사력강화로 轉用되는 길을 막으려는 공작은 외교와 민간레벨에서 양동작전으로 전개되고있다.

【金炳武기자】

스파이天國 日本

美서 훔치거나 배운機密 蘇에 빼겨…警告의미 띤 히다찌사건

IBM 산업스파이 사건을 심리중인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6일 히다찌(日立)측이 내놓은 변론서의 상당부분을 채택하길 거부했다.

히다찌측은 지난번사건이 세계시장에서 계속 우위를 차지하려는 IBM이 美연방상무성에 개입을 의뢰해서 빚어진 「함정극」이므로 무죄가 마땅하다는 주장이었다. 히다찌측은 또 이사건을 다루는 12人배심원중에서 1명은 전에 IBM에서 일한일이 있는사람이고 또한사람은 IBM社직원 부인이라는 점을 들어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이 간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의 결과야 물론 두고보아야겠지만 IBM사건은 민간회사간의 윤리도 체면도 없는 스파이공작의 한 모서리를 백일하에 드러내놓았다는 점에만 눈길이 멎는게 아니었던것 같다. 이사건은 미국내 정밀기술관련업체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미국기술을 훔쳐다가 결국 허술하게 소련에 넘겨주는일이 잦은 일본도 집안단속을 잘하라는 경고도 되었다.

사실 通産省을 통제본부로한 일본의 시장조사 기술추적 정보수집력은 그 조직과 차원에 있어 가히 CIA에버금간다는 평가다. 전세계 80곳에 지사를 두고있는 일본대외무역기구(JETRO)를 산하에 두고있는 통산성은 독자적 정보수집채널을 갖고있는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또모, 마루베니등 종합상사들이 거두어오는 정보까지 종합하고 분석하는 데이터중앙집적소같은 역할을 하고있다.

때문에 세계경제동향은 물론이고 정치정세에대한 정보조차도 외무성보다는 통산성정보가 훨씬 빠르고 신뢰도가 높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외국에 政變이 일어날때 이미 펼쳐놓은 돈줄이 위협을 받게마련이므로 그 동향을 미리 파악해두는것은 그만큼 實利보호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美국방성과 주요업체에 기술개발예보를 주로해오고있는 산호제소재 기술분석공사(TAG)의 존·D·쉬어사장은 일본이 반도체분야에서 79년까지의 개발실적을보면 35~40%의 데이터는 첩보를통해서 수집한것이라고 평가하고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부문에서 여전히 미국에 크게 뒤지고있는 일본은 오는90년대까지 VLSI 부문에서 미국을따라잡기위해 미국에 전문가 1천5백명을 파견해놓고 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美법무성에등록된 외국에이전트명부만보아도 영국이 23이고 서독이 17페이지뿐인데비해 일본은 44페이지나 된다.

이런 일본인의 범람에대해서 미국은위협을 느끼는정도는 아닌것같다. 그들은 일본사람들이 솜씨좋은 제조업자이거나 감쪽같이 모방을 잘하는 사람들이긴하지만 독창적으로 혁신을하는기질이 적다는점에서 위안을느끼고있다.

일본의 탐욕스런 산업스파이근성을 지금껏 대단한 발명가를 배출한 일이 없는 일본의 과거와 연결짓는 사람도 적지않다.

西方에서 진짜 걱정거리는 일본이 스파이天國이란는 점이다. 전후 일본의 비밀보호관계법들이 거의 폐기되다시피해서 스파이활동을 공공연히 할수있게 되어있다. 지금도 공무원비밀보장법, 美日방위비밀보호법, 자위대법등 극히 한정된 규정이 있으나 이경우 마저도 최고형이 3년징역형정도여서 사형등 극형에까지 처할수 있는 소련의 경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더구나 민간기업의 경우는 완전히 무방비상태다.

이런 틈을 타서 소련기술첩보망은 활개를친다. 소련이 미국과 일본에서 가장 탐을 내고 있는 기술은 컴퓨터, 마이크로전기공학제품, 과신호처리시스템등 3개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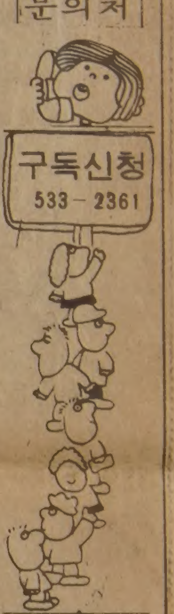
이밖에도 航法장치, 동력원, 음향 비음향탐지레이다, 전자광학탐지기구등이며 耐熱도기 유리섬유기술에도 관심이 높다.

과학기술수집 업무를 KGB에서 최고권력기관인 黨정치국 직할로 격상시킨 소련은 일본에서 역시 자금을 무제한으로 쓰고 있다. 일본은 미국다음의 선진기술을 갖고있고 그중 전자공학관련기술은 미국과 함께 제1의 수준에 올라있는데도 제품의구입이 용이하다는점 때문이다. 東京 아끼하바라(秋葉原)일대 고급기술(하이텍)시장에서 기억소자 6만4천개가 들어있는 64K램 대규모집적회로(LSI) 정도는 쉽게 살수있는데 그 최종행선지가 어디인지 추적도 안하는실정이다.

일본은 미국에서 빼내고 소련은 일본에서 사거나 훔치는 산업스파이의 숨바꼭질이 이루어지고 있다.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할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할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444-1136

캐나다 전역에 걸친 콘테스트 세일
기간: 1982년10월1일~12월31일까지
산요 자동·보온밥솥

왜 산요(Sanyo)를 사느냐구요?
• 산요제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의 밥솥 부분을 차지합니다.
• 가격이 항상 저렴합니다.
• 결코 타는법이 없으며 자동조절이 됩니다.

각 식품점에서(소매상) 산요(SANYO) 일본밥통을 싼 가격에(경품티켓과 함께) 구입할수 있으며 티켓에 당첨되면 좋은 상품을 드립니다.

• JAPAN FOOD CORP(CANADA) LTD. TORONTO
• PRODUITS ALIMENTAIRES DU JAPON(CANADA) LTE MONTREAL
• ASIAN FOODS-VANCOUVER

맛사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거리 교통 行樂 競技場
4대秩序 몸에 배게
선진국水準정착 목표
社會淨化委,「질서의식 體質化 종합대책」확정

정부는 28일 거리및 교통질서, 행락질서, 경기장질서, 공공질서등 4대질서운동을 의식개혁운동의 최대역점사업으로 설정, 선진문화국민수준으로 완전정착될때까지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이날하오2시 대회의실에서 金聖基위원장주재로 내무 문교 교통 검찰 치안본부등 11개관련부처및 전국택시조합연합회 관광협회 라이온즈 주부교실연합회등12개 유관단체 연석회의를열고 「질서의식체질화 종합대책」을 확정, 세부지침을 시달했다. 金위원장은 이자리에서 『제63회전국체전은우리국민이 갖고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입증해준 질서의 현장이었다』고 평가하고 『이번체전을 전기로삼아 건전한 질서의식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뿌리내릴때까지 상호유기적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하여 범국민적질서확립운동으로 승화발전시켜달라』고 당부했다.

◇金聖基위원장

사회정화위원회는 4대질서운동의 중점실천과제로 ▲거리교통질서는「바르게걷기」「차례지키기」「바로운전하기」 ▲행락질서는「풍기문란없애기」「깨끗한환경만들기」「바가지요금없애기」 ▲경기장질서는「난동소란안피우기」「휴지·오물안버리기」 ▲공공질서는「휴지·꽁초안버리기」「공공시설물 아끼기」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화위원회는 이운동을 효율적으로 정착시키기위한 실천방안으로 각시도 단위로 도지사 시장주관하에 관계기관장 사회단체장등으로 지역별 질서확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전국또는 국제규모의 대단위행사때는 반드시 주관기관이 질서기획단을 편성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오는11월중에 1차점검을 실시하도록했다.

또 모범운전자를비롯 각분야의 질서수범자를 질서선도요원으로확보적극활용하고초중고생및 관·공용운전자 자가운전공직자들에 대한 질서생활교육을 확대실시키로 했다.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기위해서는 장·차관급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특수기관소속 차량의 질서위반행위는 예외없이 엄정하게처벌하도록했다.

이밖에도 「질서시민상」을 제정, 모범운전자와 캠페인유공자·선행고발자등에 대해 오는11월중에 각시도별로 포상하도록하고 시민고발을 불성실하게 처리한 공직자는엄중문책하도록했다.

犯人바지 찾아
朴聖淑양 被殺사건

서울江南區驛三洞 한신공영아파트 朴聖淑양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8일하오 1시께 사고현장에서 1㎞떨어진 한강변모래사장에서 범인의피묻은 검정바지와 범인이 훔쳐간 1돈반짜리 금브로치를 발견했다.

경찰은 지난26일 발견된 러닝셔츠의 혈흔이 朴양의혈액과 동일한것임이 밝혀짐에 따라 범인이버리고간 칼을 찾기위해 이날 한강변일대를 수색하던중 이같은물증을 발견한것이다.

바지는 러닝셔츠가 버려진 곳으로부터 약5백m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는데 바지주머니안에 금브로치가 들어있었다.

경찰은 금브로치와 혁대 버클에 범인의 지문이 묻어있을것으로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지문감식을 의뢰했다.

英才교육 中斷할듯
龜尾高, 이번學期끝으로 2년만에

【大邱·龜尾】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경북龜尾고교의 영재교육이 실시 2년만인 이번 학기를 끝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이고있다.

28일 경북도교위와 구미고교에 따르면 문교부는 지난해부터 龜尾고교를 영재교육연구시범학교로 지정, 이 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영재반을 편성운영해왔는데 올해말로 연구기간이 만료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龜尾고교는 내년도에도 이 영재교육을 계속실시하기 위해 도교위와 문교부에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않아 이번 학기를 끝으로 영재교육을 중단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龜尾고교의 관계자는 『그동안의 연구자료를 모아 지난달 문교부 관계관을 초빙, 연구발표회를 가졌으나 「성공적이 아니었다」는 결론을얻게됐다』고 밝히고 『문교부로부터 현재와같은 방법으로는 영재교육을 계속하지않겠다는 방침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영재교육은 현재 1학년생 20명(남15·여5)과 2학년생 18명(남13·여5)이 각각교육을 받고있는데 이들에게는 1인당 연간26만원의 장학금을, 도내 우수교사들로 짜여진 43명의 교사들에게는 1인당 월5만원씩의 연구수당을 지급해왔으며 영재반에 편성된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생활을 해왔다.【聯合】

變態심부름센터 摘發
민방위·大學院강의에 대리出席

【大邱】大邱시경은 28일 돈을받고 민방위훈련과 대학원강의에 대리로 출석해온 심부름센터 모아비지네스 대표 黃承棟씨(35·大邱市北區山格3洞1291)와 종업원 禹炳勳씨(20·大邱市西區內唐洞27) 주식회사 「참」大邱영업소 영업과장 尹洪燮(35·大邱市南區이천1동466)씨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취과의사 鄭正吉씨(40·서울中區忠武路1가5진양빌딩 나동105)와 심부름센터 라이프 비지네스대표 李承道씨(35)등 2명을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黃씨는 지난5월4일 尹씨로부터 이날하오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大邱市남부경찰서에서 열리는 민방위훈련에 대리로 참석해달라는 청탁과함께 5천원을 받고 종업원 禹씨를 민방위교육에 대리로 참석, 훈련을 받게하여 공무집행을방해했다는것.

또 의사인 鄭씨는 K대학원 의학과 박사과정(생화학전공)을 밟으면서 지난4월1일 黃씨에게 대학원강의에 대리로 출석해달라는 청탁과함께 1만원을 준것을 비롯, 지금까지 10회에걸쳐 12만9천원을 주고 대리출석을 시켰으며 黃씨는 이 돈을 받고 서울타이프비지네스 대표 李씨에 부탁 李씨가 10회에 걸쳐 강의에 대리출석하여 鄭씨대신 수강생출석표를 허위로 기재, 제출하여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업무에 바쁜사람들을 위해 설립 운영되고있는 심부름센터가 이같이 변태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례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시내 7개 심부름센터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全國대학생 21.6%가 休學
文敎部 국회제출 資料서 밝혀

전국97개 대학의 학생들중 21.6%가 군입대·가사·질병등으로 휴학하고있으며 외국인및 교포등 정원외 학생은 총정원의 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문교부가 국회에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1학기말 현재 전국대학의 휴학생은 13만7백25명으로 입학인원(기준으로환산60만4천3백36명의 21.6%에달했다. 대학생의휴학을원인별로보면 군입대가 가장많고 가사·질병순이었고 학비조달 어려움을 이유로한 휴학도 가사와질병에의한 휴학자를 총인원에 대비하면 6.1%였다.

얼굴없는 外交官
國際電話局 교환계장 韓惠子씨
"내 목소리가 外國人에겐 첫인상…"

「디스 이즈 서울 코리어」란 영어는 듣는 장소나 듣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 받아들이는 느낌의 강도가 다르다. 서울에서 듣는 경우 예사스럽겠지만 해외교포가 듣는다면 애틋한 정이 왈칵 솟게 마련이다.

국제전신전화국 교환계장 韓惠子씨(41·사진)는 이말에 남다른 자부심을 느낀다. 하루에 수없이 이말을 듣고 어느땐 스스로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지만 싫증이 나지않고 정이 자꾸 들뿐이라고 했다.

韓씨는 이 말을 자그마치 17년동안 듣고 써온 사람이다. 교환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것은 57년7월1일부터지만 「세계속에 한국을 심는 첨병」이자 「얼굴없는 외교관」이 된것은 65년6월23일이다.

이때는 「디스 이즈 서울 코리어」란 말을 처음 국제전신전화국에서 쓰기 시작했을 때다. 막상 외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을때 이말을 하려니 입이 잘 열리지 않았고, 자신이 하는 이 짤막한 영어가 외국인에게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심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자 갈수록 어렵게만 생각됐다. 수백만달러의 상담도 이 한마디로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진땀이 날 판이었다.

그동안 韓씨가 연결한 국제전화는 1백57개국 2백17개지역에걸쳐 4만5천건이나 된다. 73년부터는 아주 바쁘거나 긴급한 일이 아니면 교환대에 앉지않지만 그대신3백75명이나 되는 후배들에게 「친절」 「상냥」을 가르치는데 시간을 보낸다. 상대방이 짜증을부리고 화를 내더라도 「친절은 마음의 꽃」이란걸 잊지않도록 지도한다.

『그렇지만 전화기만 들면 고함지르고 호통치는 사람이 많아요. 조금은 교환양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합니다』

전화가 자석식 공전식 기계식자동, 전자식을 거쳐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시대에 이르는 동안 이용자들의 태도는 기술의 변혁을 너무나 따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말한다.

그동안 영어는 물론 일어 중국어 독어 불어까지 웬만큼 익혔다. 그리고 두아들의 어머니가 됐다. 그러면서도 「가장 여성다운 일터」라서 그런지 떠날생각이 없다고 말한다. 말하자면 직업의식이 몸에 흠뻑 배었다. 【盧基昌기자】

화장품 暴利 심하다
소비자값, 生産가격의 2倍넘어

태평양화학·한국화장품·피어리스·쥬리아등 우리나라 유명화장품 메이커들의화장품생산가격이 소비자가격의 절반정도에 불과한것으로 밝혀졌다.

28일 보사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개유명메이커의 72개주요생산품 모두에 이같은 엄청난 유통마진이 붙는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요원인은 과대한 선전비가 전가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요가 많은 콜드크림의 경우▲태평양화학의 아모레·미보라크림(1백20g)의 생산가가 2천28원인데비해 소비자가가 3천8백원이고 ▲한국화장품의 새로본·애플크림(1백20g)이 생산가 2천4백24원, 소비자가 4천8백원▲피어리스의 모드니에크림(1백20g)이 생산가 2천20원, 소비자가 4천원이었다. 또▲쥬리아의미그린크림(1백40g)이 생산가 2천1백21원, 소비자가 4천2백원▲佳養의 밀론드콜드크림(1백20g)이 생산가 2천2백77원, 소비자가 4천5백원▲라미의 라미벨 콜드크림(1백g)이 생산가 2천5백50원, 소비자가 5천원으로 각각 밝혀졌다.

이밖에 각사별 주요생산품의 생산가와 소비자가격은 다음과같다.(괄호안은생산가)

◇태평양화학▲아모레·미보라·모이스처·에센스·밀크로숀(160㎖)=3천2백원(1천7백원)▲아모레·미보라·그로우·메이커·화운데이숀(45g)=3천5백원(1천8백20원)

◇한국화장품▲베라젠·아로진·밀크로숀(130㎖)=5천8백원(2천9백29원)▲마데론립스틱=2천7백원(1천3백64원)

◇피어리스▲모드니에·나리싱크림(150㎖)=3천8백원(1천9백19원)▲모드니에·메일에나멜=2천5백원(1천2백62원)

◇쥬리아▲미그린·밀크로숀(140g)=3천6백원(1천8백18원)▲미그린·에나멜=1천5백원(6백89원)▲두볼마스카라=3천5백원(1천6백7원)

◇佳養▲밀론드·밀크로숀(140g)=3천9백원(1천9백69원)▲밀론드·립스틱=3천5백원(1천7백71원)

◇라미▲라미벨·밀크로숀(130㎖)=4천5백원(2천2백95원)▲라피움·립스틱=2천5백원(1천2백75원)

학교연습장서 洋弓화살맞은 國校生
두달만에 끝내 숨져

【春川】국민학교 양궁부 연습장에서놀던 어린이가 뒷머리에 연습용화살을맞고 수술까지했으나 입원한지 2개월만인 지난26일 하오2시40분께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숨진 어린이는 春川市孝子洞 東春川국교(교장 목영연) 5학년 李정옥양(11)으로 李양은 지난8월26일 하오4시 20분께 학교뒤편의 양궁연습장부근에서 공놀이를 하던중 공이 과녁앞으로 굴러가자 이를 주으러갔다가 이학교양궁선수 崔모양(11·5년)이 쏜화살에 맞았었다.

사고가난뒤 학교측은 부상한 李양을 서울국립의료원으로 옮기고 사고가난 사실을숨겨왔는데 李양은 사고다음날인 27일부터 지난 5일사이 3차례에 걸쳐 머리수술을받았으나 끝내 숨졌다.【聯合】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32년만에… 8순의 어머니를 되찾은 梁씨는 노모의 손을잡고 그동안의 불효를 빌었다.

32년만에 母子상봉
梁謹燊씨中共서 故國돌아와
숱한苦生끝 KBS청취因緣

32년만에 어머니를찾은 6순의 아들은 나이도 잊고 노모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8순노모는 삼봉이를 되찾은 기쁨에 주름사이로 흐르는 물기을 닦지도 않고 오랫동안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28일 상오11시20분 서울麻浦區孔德洞427 한국사회봉사진흥회 사무실. 중공에서 영주 귀국한 梁謹燊씨(60)와 어머니 愼瓊兒씨(88·제주北濟州郡朝天面臥山里)가 감격적인 상봉을 했다.

梁씨가 어머니등 고국의가족과 헤어진것은 28세때인지난50년. 일본에 가있던 동생들을 찾아 밀항했을 때였다.

그는 그곳에서 다시 53년8월 중국인 행세를하며 中共가는 배를 타고 上海로 갔다. 한동안은 중국인으로 행세했으나 곧 국적이 탄로났고 살기가 어려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탈출을 기도하다 체포됐다.

梁씨는 정치범으로몰려 투옥돼 지난73년3월까지 19년을 감옥에서 지냈다. 中共당국은 65년 그의 국적이 한국인것을 확인하고 귀국의사를 타진했었다.

일단 석방은 됐으나 오랜 감옥생활에서 얻은병으로 노동도 자유스럽게 할수없었다. 한달에 42원(1만4천원정도)받는 피아노공장노동자로도 일했으나 끝내 그만두고 실업자가 되고말았다.

귀국을 결심한 그가 고향에 편지를 보내자 뜻밖에 노모가 살아있다는 소식과함께 가족들의 답장이 날아왔다.

형의 생존을확인한 고국의 동생 [illegible]씨(58)는 대한적십자사와 정부를 뛰어다니며 형의귀국을 주선, 지난해 4월에 정부로부터 입국허가를 받아냈다.

그러나 막상 형 謹燊씨는 중공을 빠져나오기가 쉽지않았다. 귀국길을 백방으로 찾던중 지난2월上海에서 KBS사회교육방송을 들었다.

그프로는 마침 서울에 있는 「사랑의전화」를 소개하며 어려운일을도와준다고했다. 梁씨는 곧 간절한 사연을 「사랑의 전화」로 띄었고 「사랑의전화」담당 申惠源양(23)은 홍콩의 우리영사관에 입국동의서를신청하면 귀국할수있다는 절차도 알려주었다.

지난26일 비행기편으로 홍콩에 도착한 그는 여권도 없이 그냥 공항에서 KAL기를타고 딱한사정을 호소, KAL측의 호의로 서울에 돌아오게된것.

『고국의 모습이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감탄한 梁씨는 上海에도 동포가 많이 살고있고 방송을 통해 고국의 소식을 소상히 알고있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북한출신 동포는 북괴가 연락을 차단해 서신왕래도 못하고있다고 안타까와했다.【[illegible]기자】

4백50년전 屍身이 그대로
충남靑陽서발견 "考古學的가치크다"

4백50년전 조선조 부인의 시신이 거의 부패되지 않은 미이라형태로 발견됐다.

27일하오 忠南 靑陽郡雲谷面美良里 美洞마을 田萬圭씨(46·농업)의 밭에서 불도저로 공사를하다가 발견된 이 시신은 키1백50㎝에 60세정도의 여자로 길이 1백73㎝ 높이45㎝ 머리쪽넓이46㎝ 다리쪽넓이42㎝ 두께7㎝의 나무관에 누워 있었다.

관바로 위에는 「令人楊州許氏」라는 명정(銘旌)이 발견됐는데 「令人」이란 조선조 전후에걸친 정4품벼슬의 부인을 일컫는다.

발굴작업을 벌였던 檀國大 민속박물관장 石宙善박사는 『수의에 조선왕조초기의 것인 금직단(金織緞)의 깃디자인이 선명하게 나타나있어 연대는 4백50년전으로올라간다. 금직단 깃디자인은 지난번 경기도 楊州郡楊根里에서 발굴된 4백50년전의南陽洪씨 묘에서 나온 수의 깃과도동일하다』고설명했다.

관속에는 여섯겹의 옷이입혀진 시신과 누비이불, 수건, 솜이 넣어져 있었고 그반백머리, 손톱, 발톱까지 그대로 남아있었다.

石관장은 『오래된시신이 그대로있더라도 부패하는것이 상례이나 이번 楊州許氏의경우 관바닥에 구멍이4개뚫려 공기가통했는데도 썩지않고 미이라의 형태로 굳어져있는것은 고고학적인 자료로서 보존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4백50년전 미이라 발굴현장. 檀國大 민속박물관팀이 관을 열고 시신을 확인하고있다.

5行뉴스

◆大學生 海洋학술세미나 【鎭海】제3회 전국대학생해양학술세미나가 전국54개교 1백98명의 대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사관학교瑞浦관에서 열렸다.【聯合】

日경비정 接近
獨島3백m 海上에

【大邱】28일 상오6시20분께 경북鬱陵郡독도 동쪽3백m해상에 일본경비정으로 보이는 선박이 나타나 섬을 촬영하다가 30여분후 동쪽해상으로 달아났다.【聯合】

老婆살해범 拘束

【慶州】속보=28일 경북慶州경찰서는 상해치사 폭력등 전과6범인 金惠春씨(35·釜山市釜山鎭區 堂甘2洞27)를 살인및 폭력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3일 하오 4시께 慶州市仁旺洞 야산에서 밭에 일하러가던 같은마을 金粉先노파(66)를 추행하려다 반항하자 주먹으로 金노파의 얼굴과 가슴등을 때려 살해한 혐의다.【聯合】

●백학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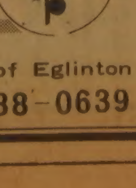
웨딩 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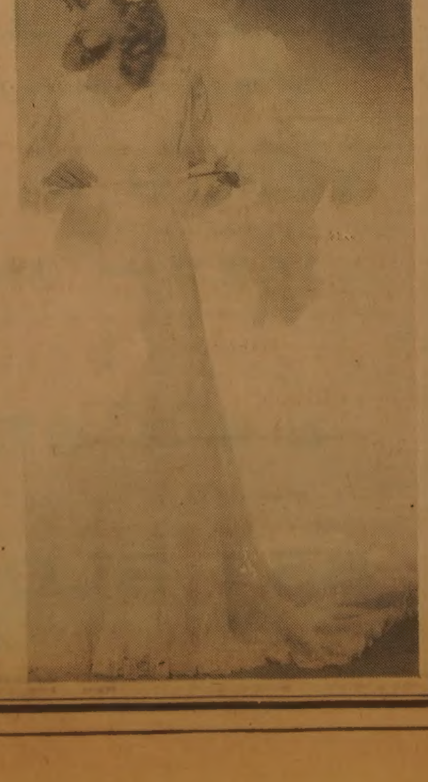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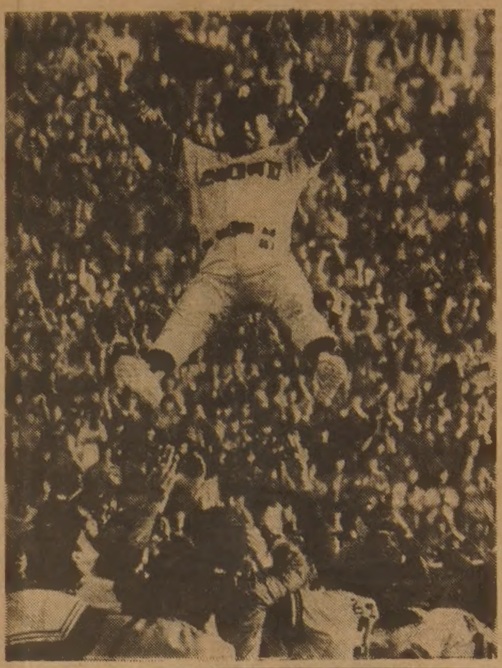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仁荷 金明星 또 決勝打點

大學야구 솔로홈런 친 東國눌러 올 2冠王 2-1

4회말 홈橫死로 滿壘 못살려 東國
5회초 線上落球…先制點 행운 仁荷



◇솟아오른 勝利의 기쁨 — 아마야구를 청산하며 종합을 기록한 대학야구선수권대회서 仁荷大에 첫우승을 안겨준 金振榮감독이 선수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있다.

仁荷大가 金明星의 결승타점으로 東國大를누르고 제37회 대학야구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仁荷大는 백호기대회 우승에이어 올해 2冠王이 되었다. 결승전 5회초 결승타를 치고 준결승전서 혼자6타점을 올린 仁荷大우승의 주역 金明星은 최우수선수상과 수훈상을 받았으며 우수투수상은 仁荷大 에이스 吳泳日, 타격상은 漢陽大의 金京杓가 받았다.

28일서울운동장에서벌어진 대회 최종일 결승전에서 仁荷大는 5회초 9번 李光吉의 포볼에이어 1번 梁厚承, 2번 金明星의 연속안타로東國大를 2-1로 제압, 우승했다.

프로팀 三美감독 취임설이 나돌고있는 仁荷大 金振榮감독과 졸업을 눈앞에둔 吳泳日, 金相基, 金鎭雨, 李善雄, 崔光默, 李光吉등 4학년 주전선수들에게는 뜻깊은 우승이었다.

東國大는 대통령기대회 준우승에 이어 또한번 우승문턱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경기는 초반부터 열기를띠었다.

4회 東國大가 득점찬스를 먼저 잡았다. 3번 金旻浩와 4번 韓大化의 연속안타로주자는 無死1·3루. 5번金榮伸의 스퀴즈번트가 仁荷투수정면으로가 3루주자 金旻浩는 홈에서 횡사했다.

이어 6번지명타자 李建烈이 경원 포볼로 다시만루찬스를 만들었으나 7번黃鍾先이 2루수앞에 병살타를 때려 東國의 득점찬스는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게임은 仁荷페이스였다. 황금찬스를 놓친 東國선발 閔文植의 구위가 갑자기 떨어져 콘트롤을 잡지 못했다.

仁荷는 5회초 선두8번 盧亨根이 성급한 공격을 펴다가 우익수 플라이로 잡혔으나 9번李光吉이 포볼로나가 득점발판을마련했다. 1번 梁厚承은 풀·카운트에서 히트·앤드·런사인을 받아 휘두른것이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행운의 2루타, 스타트를 빨리한 2루주자 李光吉이 여유있게 홈을 밟아 천금의 선제점을 올렸다.

다음타자는 전날 혼자6타점을 올렸던 2번 金明星. 앞타석서 중전안타를 치고도 점수를 얻지 못했던 金은 閔文植의 1구를 기다렸다는듯이 받아쳐 중견수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날려 2점째를 기록했다.

2점을 빼앗긴후 범타로일관하던 東國은 9회말 마지막공격서 1死후 3번 金旻浩가 좌중월 솔로·홈런을 터뜨려 東國응원단을 열광시켰으나 4번 韓大化가 삼진으로, 5번 金榮伸이 땅볼로물러나 1점차로 분루를 삼켰다.

◇최종일 결승전

인하대	000	020	000	2
동국대	000	000	001	1

▲홈런=金旻浩(9회·동국)

◇개인상

▲최우수선수=金明星(인하중견수) ▲우수투수=吳泳日(인하) ▲감투상=姜政男(동국좌익수) ▲수훈상=金明星 ▲미기상=李鍾元(성균관1루수) ▲타격=①金京杓(한양2루수)11타수7안타(0.636) ②金漢杓(인천전문2루수)8타수5안타(0.625) ③金漢兆(동아좌익수)10타수6안타(0.600) ▲타점상=金京杓8타점 ▲최다안타상=金平鎬(동국중견수)8안타 ▲감독상=金振榮(인하감독)

日野球 퍼시픽리그 西武, 中日에 3勝2敗리드

【東京支社】日本 프로야구 퍼시픽리그의 세이부(西武) 라이언즈는 28일열린 日本시리즈5차전에서 쥬니찌(中日) 드래건즈(센트럴리그)를 3-1로꺾고 3승2패로 다시 리드했다.

西武의 미국인선수 스티브는 5회말 투타로 동점타점, 7회말 2루타로 결승타점을올려 대활약했다. 6차전은 30일 나고야서 열린다.

탁구有望株 嚴美慶 스카웃熱風 휘말려

2重등록 失格위기

세이크·핸드 수비형의 탁구유망주 嚴美慶(부산 계성여상)을 둘러싸고 치열한 스카웃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어 자칫 이중등록으로 선수활동을 중단할지모르는 위기에 처해있다.

嚴美慶을 확보하기위해 부산코카콜라팀은 이미 가등록선수로 묶어두었으나 선수본인은 대한항공으로 입단할뜻을 고집, 팽팽한싸움을 벌이고있다. 嚴美慶은 두팀에 의해 모두 선수등록이 신청될 경우 이중등록으로 83년시즌 선수자격을 잃게된다.

한편 제2회 서울·오픈국제탁구 여자단식챔피언인 국가대표 梁英子(이일여고)와 세이크·핸드공격수 金淑姬(경주 근화여고)는 第一毛織에 입단할 예정이다. 남지상비군 金正歡(청주고)은 三湖팀에 입단키로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53>

朴婉緖 作 / 金光培 畵

안개속의집 ⑳

『아냐, 그만 둡시다. 서로 노력할 여자는 아직 있으니까』

기욱이 선심쓰듯이 말하는 게 못마땅했지만 수지는 대꾸하지않았다.

참아야돼. 그녀는 자신의 내부에서 끓어오르는 비밀스러운 흥분에 대해, 또는 다스려지지않은 뿌리깊은 분노에 대해 이렇게 타일렀다.

『보일러시설을 고치잔 얘기말야』

그날밤 잠자리에서 기욱이 불쑥 말했다.

『괜찮아요. 그만둡시다. 석달이면 당신은 따뜻한나라에서 고스란히 월동할텐데 뭘 그래요?』

『원 사람도, 그 끔찍한중동더위를 따뜻하다네?』

『당신이야 노무자가 아닌 어엿한 간부사원인데 더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증막에 들어가듯이 일부러 맛보기전엔 진짜기온이 어떤지 짐작도 못하게 서늘한 곳에서만 지낸다면서요?』

『그렇지만 영 매력없는 고장이야. 예기치않은 일에 대한 기대가 전무한 고장이니까』

『예기치않은 일이 아니라 예기치않은 정사겠죠?』

『암튼』

『그러게 돈 벌러가지 그리로 관광가는 사람 없잖아요. 돌아오시는 길에 유럽쪽에서 며칠 즐기다오시구려. 당신정도면 그 정도는 지키시간 가져도 누가 뭐랠사람 없을걸요』

『글쎄, 경영자란는게 그렇지도 않을걸. 전 그렇고

海龍·住銀도 10強합류

전국축구 각각 高大대파·現代자동차선「自殺」골

住宅銀行과 海龍도 現代自動車와 高麗大를 각각 물리치고 10강에 합류했다.

住宅銀은 28일 효창구장서 열린 제37회 전국축구선수권대회 7일째 4조경기서 現代自動車의 자살골로 1-0으로 행운의승리를거두었다.

住宅銀은 전반16분 金澤善이 페널티에리어 우측외곽서 골문을 향해 프리킥한 볼을 現代 自動車 수비 愼洵範이걷어내다 빗맞아 골인, 결승골을 따내 결선에 올랐다.

6조 海龍은 高麗大를 맞아 전반5분 申相根이 邊一雨의 도움을받아 선제골을뽑은뒤 후반23분 白鉉英이, 26분 李容秀가, 34분 金泰煥이 각각 1골씩 3점을추가, 크게리드했는데 高麗大는 후반36분 崔台鎭이 1점을만회, 영패를 면했다.

7조 浦鐵-明知大 대전서는浦鐵이 2-1로승리했다.

◇제7일 전적

▲4조 주택은 1(1-0 0-0)0 현대자동차 (1승1무)(1무1패)

▲5조 한국전력 1(1-0 0-1)1 대전한국 (1승1무)(2무)

▲6조 해룡 4(3-0 1-1)1 고려대 (2승)(1무1패)

▲7조 포철 2(0-1 2-0)1 명지대 (1승1패)(2패)

수영

아시안게임에서 수영은 육상다음으로 많은 34개의 금메달이 널려 있는 황금벌판.

그러나 이넓은 벌판에서 금한두개도 캐기 힘겨운게 한국수영의 참담한현실이다.

70·74년 대회때 趙五連이금, 74년대회서 다이빙의 高皓錫이 은을 따내 가능성을보이기도했으나 78년 8회대회에선 동메달2개에 그치는 부진을보였다.

한국수영은 이번 9회대회에는 비장한 각오를 갖고 코치3, 선수11명 (경영9, 다이빙2)의 대회사상 가장많은 선수단을 파견한다.

메달획득 목표도 금1, 은3, 동11개로 잡고 있다.

한국선수중 금메달에 가장가까이 접근하고있는 기대주는 배영의 崔允庭·允喜자매. 수영연맹은 배영 1, 2백m의 崔允喜에게 금1, 은1개를, 允庭에게 은1개를 기대하고 있다.

또 하이다이빙에서 은1, 남자혼계영, 여자개인혼영 2백m (金盼希)·자유형8백m와 개인혼영4백m(李始恩), 여자계영, 혼계영4백m등에서 3위권 입상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기대로 끝날지 모른다.

물론 수영은 초이하단위를 다투는 스포츠여서 경기당일의 컨디션이 크게 좌우되지만 현재의 기록만을 놓고 비교해 볼때 한국목표는 결코 낙관적은 아니다.

아시아의 수영왕국이라고 할수있는 日本도 최근 해외高地훈련등을 통해 새로운 유망주들을 발굴, 기록향상을 보이고있으며 中共도 8회대회서의 참패를 씻기위해 4년간 와신상담, 상당한 기록향상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싱가포르, 필리핀도 만만치않다.

가장 밝은 빛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日本의 취약종목이자 한국의호프 允庭·允喜자매가 버티고있는 배영1, 2백m.

1백m서 允喜의 최고기록은 1분05초84, 允庭은 1분06초01로 지난 8월日本의 신예 마에다(前田)가 세운 1분05초34에는 각각 0.5, 0.67초 뒤지고 있다. 2백m에서는 允喜(2분21초53)가 前田(2분20초22)를 1초31차로 뒤쫓고있어 배영은 경기당일의 컨디션과 레이스경쟁 열기에따라 메달을 바라볼수있을것 같다.

그러나 金盼希의 주종목인 접영 1, 2백m나 崔允喜가 참가할 개인혼영2백m등은 아직 日本의3위 기록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대표팀은 아시안게임에 맞춰 훈련스케줄을 잡아온 만큼 앞으로 있을 최종 기록 평가회와 뉴델리경기에서는 보다 좋은 성적이 나타날것으로 기대한다.

목표는 金1 銀3 銅11… 樂觀못해

崔允庭-允喜자매 背泳등 기대

強訓·기록향상 日 꺾는게 초점

"當日 컨디션도 좋아야"

◇수영 대표선수들이 泰陵선수촌 트랙을돌며 체력강화훈련을 쌓고있다. 【韓隆기자】

【兪奭根기자】

◇수영대표선수

▲코치=柳鶴謙 朴順錫 趙彰濟 ▲선수=千仁泰 李蕙喆 李忠原 朴鍾龍 李承俊 方駿榮 (이상 남자) 崔允庭 金盼希 李始恩 權于禎 崔允喜 (이상 여자)

◇韓·日기록비교

종	목	한국기록		일본기록	
남자	자유형 1백m	李蕙喆	55초48	隅田	53초76
	배영 1백m	方駿榮	58초60	泉憲	56초52
	혼계영 4백m	한체대	4분13초23		3분51초83
여자	자유형 8백m	李始恩	9분21초11	關戶	9분 8초19
	배영 1백m	崔允喜	1분05초84	前田	1분 5초34
	배영 2백m	〃	2분21초53	〃	2분20초22
	접영 1백m	金盼希	1분05초40	久米	1분01초30
	접영 2백m	〃	2분18초49	〃	2분12초79
	개인혼영 2백m	崔允喜	2분29초71	大崎	2분23초02
	혼계영 4백m	상명여고	4분38초46		4분14초60

海外스포츠話題

映畵「로키」스탈론 복싱興行會社차려

"無名헤비級 百여명參加대회도 계획"

◇映畵「로키」서 집념의 복서로 출연했던 실베스터·스탈론이 흥행회사를 차려 실제로 복싱세계에 투신한다.

집념의복서 로키·발보아로 출연, 세계영화팬들을 감동시켰던 실베스터·스탈론이실제로 복싱계에 투신한다.

스탈론은 타이거·아이·프러모션이란 흥행회사를차리고 프러모터로서 데뷔하게 됐다.

그가 프러모션회사이름을 타이거·아이 (호랑이 눈)라고 붙인것은 『정글에 사는 호랑이는 조심성이없고 불운한경우에 죽음을 당하지만 프로복싱계에서는 아무리 조심성있는 프러모터라할지라도 사채로 잡아먹힐수 (파산당할수) 있다』는 복싱계금언에서 따온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탈론은 세계적인 흥행사인 『돈·킹이나 봅·애럼과는 겨루지않겠다. 그들은 나보다 훨씬 강하기때문이다』며 영화 로키에서 자신보다 훨씬 강한 복서와 싸웠던 투지대신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스탈론은 프러모터로서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고있다. 비 게임에 회원 카드제를도입하고 거의 이름이알려지지않은 80~1백여명의 헤비급 무명복서가 출전하는 대회도 만들 계획이다. 그는 이대회를 「스탈론대회」또는「로키대회」로 이름붙일계획이다. 스탈론이 처음 주최할 게임은 라스베이가스 시저스·팰리스에서 열릴 前WBA라이트급챔피언 신·오그래디와 피터·랜자니의 논타이틀전. 이 대전은 ESPN을통해 TV중계되며 스탈론은 해설을 맡게된다. 【金仁奎기자】

「베스트」아낀 한국

코스모스에 逆轉敗

「徐行」속 날카로운 個人技

北美最優秀 키날리아 돋보여

코스모스

韓美친선축구 1차전 1-2

【全州=千一平기자】한국대표축구팀은 28일 全州공설운동장에서 열린 美프로축구(NASL) 81~82시즌 우승팀 코스모스와의 친선경기 1차전서 2-1로 역전패했다. 한국-코스모스 2차전은30일 馬山서 열린다.

코스모스선수들은 이날 천천히 뛰면서도 경쾌한 개인기를 보였다.

한국은 30일 馬山2차전에서 베스트11을 기용하려며 벤치에 있던 선수들을 고루 기용했다.

한국은 전반15분께 보기세비크의 날카로운 헤딩슛을 GK鄭聖敎가 몸을 날리며 손가락 끝으로 막아 위기를 벗어났다. 30초후 코스모스 문전에서 혼전중 丁海遠이 [illegible] 튀어나오자 姜信寓가 [illegible] 볼을 넣었다.

전반24분 로메로가 왼쪽터치라인을 타고들어가 수비2명을 제치고 한국골문으로 진격, GK鄭聖敎가 덮쳐 볼을 잡아냈어야할 상황이었지만 한국수비가 걷어낸볼을 네스젠스(네덜란드)가 잡아 왼발 논스톱으로 때려 동점골을 만들었고 전반39분 올해 北美축구최우수선수로 뽑힌 키날리아(이탈리아)의 헤딩패스를 받아 보기세비크가 [illegible]

코스모스 2(0-1 2-0)1 대한 [illegible]

▲제1차전

서울青少年 亞洲都市 女子농구 3連勝

【홍콩=聯合】서울팀은 27일 홍콩에서 속개된 제1회 아시아도시대항 여자농구선수권대회 사흘째 경기에서 말레이지아의 콸라룸푸르팀을 95-40으로 대파하고 3연승을 기록했다.

◇제3일전적

서울 95(55-24 40-16)40 콸라룸푸르 (3승)(1승2패)

마닐라 80-74 홍콩 (1승2패)(3패)

商銀、韓國化 제압 추계 실업야구

제28회 추계실업야구대회 14일째 경기에서 商業銀行은 韓國化粧品에 6-2, 韓一銀行은 星武에 7-4로 각각 승리했다.

◇제14일전적

상업은행 (4승3패)	211	010	100	6
한국화장품 (4승3패)	000	200	00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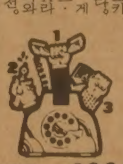
▲홈런=梁承虎(5회·상)

성무 (5승3패)	000	010	003	4
	041	002	00×	7
한일은행 (4승3패)	020	201	010	6
한전 (3승5패)	013	040	00×	8

스포츠短信

◆…프랑스 IOC위원인 모리스·에르조그氏가 27일 내한했다. 氏는 IOC위원인 金澤壽 대한체육회장 초청으로 來韓했다.

◆…東亞建設 탁구팀 코치로 李에리사 東亞建設은 여자탁구팀 코치로 李에리사씨를 새로 기용했다. 전감독 兪鎭奎씨와 전코치 李永吉씨는 東亞建設 실무에 종사케되었다.



533－2361

소 잃고 난후 외양간 고치시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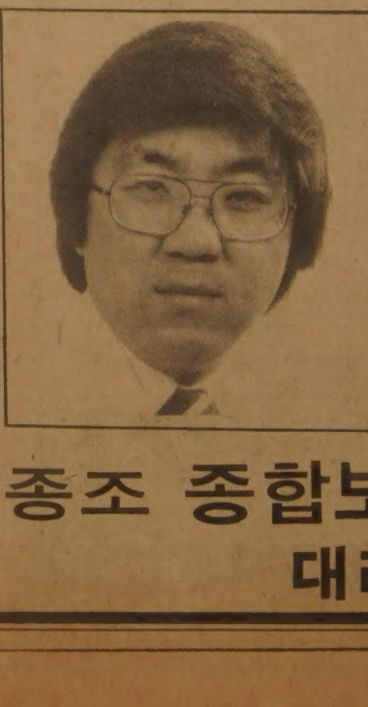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불행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법……

보험대리인 김 종 조는 여러분에게 좋은 상담역이 되드릴겁니다.

자동차 — 생명 — 교육 — 사업 — 적금 — 부동산

◎ 모든보험은 한곳에서!

김 종 조 종합보험은 신속하고 친절한 봉사가 자랑입니다.



651 BLOOR ST. W.

535—0028
535—7200

김종조 종합보험 대리점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쉴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중국집) 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 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식 품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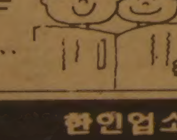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님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볼라도)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전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학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광고문의 533–2361

테 레 비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석

한 방 원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루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복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경험 있는 재봉기술자 구함.
(단침및 쌍바늘 사용)
부분 일거리임.
신청: Irving Posluns, division of Dyles
637 Lakeshore Blvd. W. 3층
Gino에게 문의 바람.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구함.
전화 : 368-2819 Mr. 왕

한국음식에 조예가 있으신분, 약간명 모집함.
658½ Bloor St. W.
전화 : 537-0432

가게 경험있고, 영어할수 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교통편한 다운타운지역, 주중 스테디 풀타임 JOB.
전화: 699-3953, 960-0376

경험있는 가게 헬퍼 구함.
전화: 266-6355 스카보로지역.

경험있는 재봉사 구함. 나이론자켓 만드는데
좋은 월급. 휜치와 웨스톤 근처.
전화: 746-0054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전화: 923-4354 Mr. 김

출퇴근 하실 베비씨터 구함
◉스카보로지역
전화: 431-0852

용모단정하고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하루 7시간. 전화: 532-6143 · 532-9638

Pioneer 라디오수리 기술자 구함
◉유경험자에 한함
전화: 445-8530 캐니 or 하이디,

캐쉬어 구함.
Keele & Lawrence 근방
전화 : 248-6442 신

토요일도 광고접수

오전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 : 533-2361-4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한 국 일 보 광 고 부

개 인 지 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 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 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칩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기 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매 매

TUCK SHOP(시간 짧고 이윤좋은 가게) $15,000다운+모기지
개인사정으로 급매. 주매상: $2,500 아스킹: $25,000+스탁
전화 : 275-9507 20 Mississauga Valley Blvd.

음식점 매매 함(260명의 좌석이 있음)
6,000 Sq. Ft. Bloor & Bathurst 근처
전화: 961-4451 KADRI

버라이어티나 그로서리 가게를 새로 차리는 분께
물건과 장비를 실비로 드리겠음
전화: 368-9018, 366-0960

빌딩과 잘 꾸며진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이층에 살림집이 있음. QUEEN STREET EAST.
아스킹 : $79,000+스탁 전. 화 : 465-1005 MR. Kung

Dry Cleaning Depot Store for Sale.(Lawrence & Allen Express)
Plaza 안에 있음. 12 Flemington Rd.
전화: 759-8658(R), 781-6774(B)

전망좋은 그로서리가게, 토론토 북쪽 15분거리.
주매상: $6,600이상, 아스킹: $79,000 렌트: $880
3년+10년 옵션 전화: 833-6318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버라이어티 스토아(TILSONBURG)
주매상: $3,500 9am-6pm
일요일 문닫음. 렌트: $825(이층에 2베드룸아파트 포함)
권리금없이 $10,000만 다운요.
스탁: 약$35,000 나머지 10% 모기지
연락처: (519)842-5741 혹은 453-6088로 문의 하세요.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좋은 조건의 가게 싸게 팝니다.
관심있으신 분 직접 내방요. 주매상: $4,000
430 York Blvd., Hamilton(해밀톤)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좋은 가격으로….
전화 : 783-0134 오후4시-8시사이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 위치
전화 : 691-3333 Gus or Frank

자동차 매매. ▲'73 PONTIAC PARISIENNE. 350 Auto.
쌍 마후라, Power Handle, P.B. P.W. 에어콘. 76000마일. Excel Con
여자운전, CEPT. $1,850. ◉전화: 241-6392

그로서리 Store 매매. (이층은 살림집)
년매상: $200,000. 가격: $95,000 (일요일 휴점)
모개지: $30,000 at 8¾%. 연락처: 519-327-8368

5개월된 새버라이어티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Plaza에 위치한 깨끗한 가게. 주위에 식당, 사무실이 많고 경쟁자 없음. $31,000+스탁. 전화: 294-8164

베커 프렌자이스 급매.
3208 Danforth Ave.
전화: 699-6583

버라이어티 가게 급매
주매상: $4,000 리스: 1년(650불)+5년
550 Sheppard Ave. W.

조그만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Lottario 머신있음. 아스킹: $15,000+스탁
전화 : 266-5715

오샤와 시내 주택가에 위치한 3층 아파트빌딩 좋은 가격에 팝니다. 한달인캄 : $1,200
아스킹 : 11만8천불. 전화 : 293-3515 MIKE

비데오아케이드가 딸린 가메 팝니다.
바데오머신 15대. 가게주매상: $4,500. 내방바람.
651 QUEENSTON RD. STONEYCREEK. ONT.

가 구 매 매
자개상 3개·자개3층장 2개·자개문갑 1개
전화: 536-1721(가게), 363-1410(집)

◉Milk Cooler(문 5개짜리), 길이가 10Ft.
◉아이스크림 캐비넷과 Sheif 매매함.
전화: 881-0757 MR. 리

Dry Cleaning depot. 매매
년매상 : $50,000
전화 : 787-1549

여행사를 위탁 경영 또는 인수
받으실분 찾습니다.

P.O. BOX 152
STATION P.
TORONTO, ONT. M5S 2S7

Space Rent
꽃·파일·버라이어티가게 적합.
도로 확장공사 완료.
대형공장및 Plaza가 신년초 Open하는 지역.
346 Weston Rd.(St. Clair 와 Rogers 중간)
자세한문의는: 763-3289, 365-1489(오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방세 놓음. ◉1Bed Room Apt.
차고 세탁기사용 포함. 월 $400. 독신자. 또는 부부 환영.
전화 : 532-9581

단층집(Semi Detaches) 4 Bed Room 세놓음
Home Bar등 지하실 꾸며져있음. 스카보로 지역
(Neilson & Sheppard) 전화 : 968-9450

콘도미니움 For Rent or Sale. ◉12월 1일부터.
Victoria Park & Danforth(써브웨이 건너편)
◉렌트: 월 $700(관리비 포함) ◉전화: 694-4812

사무실 대여함.
외환은행 불루아지점 3층 890sq.ft.
전화 : 535-8801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도 서 판 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RALPH M. LEVINE B.A.(Barrister and Solic 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불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험

CANADA LIFE (강하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배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 279-7774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안)
각종 파티·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차 매 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사무용구및 계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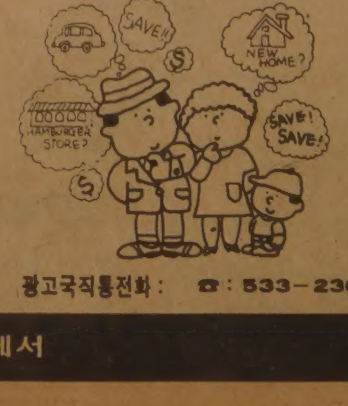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선 물 센 타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

5 일에 $ 15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